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기 간: 2024년 5월 12일(일) - 2024년 5월 17일(금)

출장지: 프랑스 파리

출장자: 최은지 부연구위원, 정민기 부연구위원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2. 출장기간: 2024년 5월 12일(일) - 2024년 5월 17일(금) (4박 6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최은지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정민기

4. 출장목적:

- (1) 2024년 제50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회의 참석
- (2) 제31차 OECD 비도시 작업반 회의 참석
- (3) 제46차 지역지표 작업반 회의 참석
- (4) 제35차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참석
- (5) 지역주도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관련 업무회의회 개최

5. 주요 목표:

- 회원국별 지역개발정책 관련 발제 및 토론을 참관하여 각국의 관련 정책동향 파악
-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재난 관리, 지역의 회복력·매력도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논의 등을 위해 회원국별 경험과 정책사례를 공유
- 한국대표단(국토교통부) 회의 발표 자문

6. 출장의 기대효과: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적 도시정책 이슈 및 전략 파악
- 지속적인 국제회의 참여로 국제협력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관련 연구자료 확보
- RDPC 내 국토연구원의 위상 증진과 OECD 관련 연구 참여 및 협력방안 모색
- OECD 국제회의에서 도시정책 관련 한국대표단의 발의 내용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역할 재확인

7. 한국대표단 및 지원인력 구성

- (1) 국토교통부: 4인
 - 오성익 기획관(지적재조사기획관)
 - 임현아 사무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 송혜연 사무관(성장거점정책과)
 - 차시현 주무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 (2) 국토연구원: 2인
 - 최은지 부연구위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
 - 정민기 부연구위원(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

- (3) OECD 대표부: 1인
 - 김남균 과장

- (4) OECD 및 ITF 사무국: 4인
 - 이랑 과장
 - 이지혜 과장
 - 정순열 과장
 - 이창기 과장

II. 출장일정

일정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비고
2024년 5월12일(일)	인천	파리	(10:45) 인천 출발(OZ 501) (18:05) 파리 도착	
5월13일(월) 09:00~18:0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1차 비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오프닝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도시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비도시지역의 웰빙 정책 - 지역 개발현황과 정책 대응 - 비도시정책 강화 ○ 비도시 지역 웰빙의 사회적 측면- 양질의 서비스 공급 ○ 비도시 지역 웰빙의 경제적 측면- 비도시지역 혁신 활성화 ○ 비도시 지역 웰빙의 환경적 측면-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정책 ○ 비도시지역의 연결성, 기능성, 서비스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s) 정의 - 도시-비도시 연계에 따른 서비스 네트워크 ○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6차 지역지표 작업반 회의) 오프닝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수준, 동등한 기회, 디지털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도시의 생활수준과 동등한 기회 - 디지털 격차 : CFE국 활동 업데이트 ○ 지역과 도시의 기후 위기 대응 ○ 국토 통계의 현재와 미래 ○ 데이터베이스·지표·tool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도시와 지역 데이터 플랫폼 - 지역 매력도 Compass tool ○ 기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공공 R&D를 통한 민간 R&D 촉진 - 지역의 기업과 성장 ○ 비도시지역의 연결성, 기능성, 서비스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s) 정의 - 비도시지역의 서비스와 대중교통 접근성 ○ 마무리 	
5월14일(화) 09:00~17:3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차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오프닝 세션 ○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도시와 국가 도시 정책 ○ ‘OECD 도시정책 원칙’ 5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도시정책 원칙’을 활용한 사례 - 모로코의 국가 도시정책 리뷰 사례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디지털화와 AI ○ 넷-제로 도시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행동과 회복력에 대한 국토적 접근(TACAR) - 탈탄소 빌딩 정책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 : 다층적 접근 ○ 도시에서 가능성에 대한 접근성 확대 ○ 마무리 	
5월15일(수) 09:30~18:00	파리 OECD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0차 RDPC회의 1일차) 오프닝 세션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소 기반 정책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사업계획 및 2025년 장관급 회의 준비상황 ○ 장소 기반 정책에 AI 활용 ○ 도시, 비도시, 지역에서의 기후 회복력 	
5월16일(목) 09:15~15:0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0차 RDPC회의 2일차) ○ 국제관계 (CONFIDENTIAL SESSION) ○ 비도시 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웰빙 증진 ○ 도시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인구 변화 대응 ○ 글로벌 전환 단계에서의 지역개발 정책: 이행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있는 인프라 정책 	
	파리	(20:05) 파리 출발(OZ 502)	
5월17일(금)	인천	(15:05) 인천 도착	

주: 출장일정 검증자료(항공권)는 부록 참조

III. 수행사항

제31차 농촌정책(Rural Policy)작업반 회의 (WPRP)

1. 회의명

- 제31차 농촌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Rural Policy)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4년 5월 13일(월), 9:00 ~ 16:00
- OECD Room CC7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오성익 기획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임현아 사무관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최은지 부연구위원

4. 주요 주제

- 비도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비도시 지역의 웰빙 정책 (Delivering rural well-being to address rural discontent)
 - 지역 개발 현황과 정책적 대응 (State of rural development and policy responses)
 - 비도시지역 정책 강화 (Strengthening Rural Policy)
- 비도시 지역 웰빙의 사회적 측면 - 양질의 서비스 공급 (Social dimension of rural well-being - delivering quality services in rural regions)
- 비도시 지역 웰빙의 경제적 측면 - 비도시 지역 혁신 촉진 (Economic dimension of rural well-being - fostering rural innovation)

- 비도시 지역 웰빙의 환경 측면 - 비도시 지역 웰빙 증진을 위한 ESG (Environmental dimension of rural well-being - ESG to deliver well-being in rural regions)

5. 주요 논의내용

(1) [Item 2] Delivering rural well-being to address rural discontent
(09:15-10:45)

(1-1) [Item 2.a] State of rural development and policy responses

- (Secretariat 발표) 일부 지역에서 농촌 지역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됨: 1. 혁신 기반의 기회 (innovation-based opportunities) 창출, 2. 디지털화에 따른 기회 포착, 3. 녹색 전환 및 녹색기술의 이용, 4. 교육 및 보건 환경 개선, 5. 정부와 농촌 지역사회 간의 소통 방법 개선, 6. 장기적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 예측 방법론의 적극적 활용
- (미국 USC 발표) 미국의 도시-농촌 간의 격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를 공유함. 연구 결과 트럼프 지지자들은 주로 분노한 저소득층이라는 것, 농촌 지역 미국인들은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 작은 규모 마을의 미국인들은 가난하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남. 실제 다시 부흥하고 있는 미국 제조업은 대다수 미국 농촌 지역에 있으며 도시와 농촌 경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유사한 역학 관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정부에 대한 시각, 종교, 행복도 등에서도 유사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남. 반면 도시와 비도시 간의 격차는 엘리트 교육,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 발언) 삶의 질 (quality of life)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 발언)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에 대한 논의보다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분노의 원인에 정책적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201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농촌 지역 시위는 주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2023년 3월에 발간되었던 *Every Region Matters*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개별 지역의 역량 강화와 지역별 서비스, 교육 수준 등의 차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농촌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의 수립,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 정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발언) 미국의 농촌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그 결과 40%의 농민이 소농 및 중농에 해당되며 농민의 50%는 마이너스 소득을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농외소득이 필수적이며 5개 농촌 지역 중 1개 지역만이 농업 기반인 현실을 고려하면 농촌 지역사회는 더 이상

농업 기반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새롭고 유연한 접근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임. 무엇보다 지역 자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외에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와 환경 정의 (environmental justice) 대응, 장소에 기반한 형평성과 기회, 시장 접근성 확대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중요한 정책적 교훈은 다음과 같음: 1.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농촌정책 협력 강화, 2. 지역사회 및 신뢰를 중심에 둔 접근방식, 3.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지원

- (뉴질랜드 발언) 뉴질랜드 농촌 지역에서는 세 가지 트렌드가 두드러짐: 1. 도시로의 이주, 2. 경제 부문에 대한 환경 정책의 영향, 3. 기후변화의 영향. 최근 몇 년간 뉴질랜드 농민들은 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EU 발언) 최근 몇 달간 일부 EU 국가들에서 농민 시위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시위의 공통점은 정책 결정에 있어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따른 좌절감임. 농민 단체와 농촌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보다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이러한 불만의 60%는 가장 외딴 농촌 지역으로부터 나오고 있음. 3년 전 EC는 “Long-term vision for rural areas”를 채택했으며 EU는 현재 공동의 비전과 공통된 목표 추구를 위해 서로 다른 농촌 정책을 하나로 엮기 위한 농촌 지역 액션 플랜(Rural Action Plan)을 준비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 발언) 불만으로부터 야기된 농민 시위는 없었으나 기후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023년 에스토니아의 농촌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음. 구제 조치 차원에서 농경지 임대 정책 등을 도입하였으며 식품 생산 및 안전을 국방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음
- (캐나다 발언) 캐나다인의 1/5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AI 활용, 도시만큼 심각한 주택 문제,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이 캐나다 농촌 지역의 주요 현안임

(1-2) [Item 2.b] Strengthening Rural Policy

- (Secretariat 발표) 디지털화,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 등 여러 구조적 변화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를 창출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농촌 지역의 웰빙을 궁극적인 목표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농촌 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경제적 측면에서 농촌 지역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환경적 측면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본 보고서의 1장에는 OECD 국가들의 농촌 지역 현황에 대한 검토, 2장에는 중앙정부의 정책 효과가 로컬 수준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촌 웰빙 체계 강화 방안, 3장에서는 농촌 개발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정책 수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본 보고서의 초안은 2024년 12월

WPRUR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2025년 2월 최종본을 제출하고 2025년 5월20일에 출판될 예정임

- (아일랜드 발언) 아일랜드는 OECD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농촌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마련하였음. 최근 아일랜드는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난민과 관련하여 이주민 통합 이슈, 농업부문 기후변화 문제 등을 마주하고 있음. 또한 농촌의 지역적 범위 설정, 통합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멀티 거버넌스(multigovernance) 체계 구축, 지역과 로컬을 어떻게 통합할지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로 남아있음

(2) [Item 3] Social dimension of rural well-being - delivering quality services in rural regions (11:15-12:30)

- (일본 TAD 발표: Social issues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제로 농업부문의 웰빙과 사회적 문제 관련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함. 농업 및 농촌 부문의 이슈는 다부문에 걸쳐 있으므로 웰빙에 있어 다차원적인 접근방식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농촌의 제한된 데이터 가용성 문제는 농촌 사회 문제를 수면 위에 떠오르도록 하는 데 있어 방해 요인이 되고 있음. 농업 인구가 전국 경제조사에서 식별되지 않거나 농외소득 종사자, 소수집단, 농민집단 관련 데이터가 부재한 경우가 많음. 무엇보다 정책입안자들은 농촌의 건강, 기술훈련, 사회적 보호, 데이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문별 정책을 넘어 보다 큰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함. 다양한 정책 경험 공유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영향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임
- (Secretariat 발언) 농촌 지역 웰빙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 관한 논의는 인구 변화에 대해 지역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workstream)와 관련이 있음. 동 이슈와 관련하여 2023년 2월에 시작된 “Shrinking Smartly and Sustainably” 프로젝트는 토지이용, 주택, 소도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정책을 통해 웰빙을 극대화하면서 인구학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임. 교육 문제를 들여다보면 학생 수, 접근성, 교육의 질, 교육 관련 인력 등이 도전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 디지털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통 및 이동성의 경우 공급 부족 및 환경 이슈가 문제가 되지만 멀티모달(multimodal), 녹색전환 등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음
- (Breakout Session)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의료, 교육, 이동성 및 인프라, 디지털 접근성, 주택 관련 농촌 지역 대상 혁신적 서비스 전달 전략에 대해 논의함

(3) [Item 4] Economic dimension of rural well-being - fostering rural innovation (14:00-15:00)

- (Secretariat 발표: Enhancing Rural Innovation) 농촌 지역 혁신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함. 농촌 지역 창업가들이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공공부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인 것으로 확인됨. 또한 정부의 정책 조율 역할의 중요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남. 농촌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농촌 지역 인구 현황을 반영한 직접적인 지원인 것으로 보임. 정부가 농촌 혁신에 있어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과학 및 기술 유형의 혁신을 넘어서는 혁신 추구, 2. 농촌 인구구조 및 기업과 지역사회 성격에 적합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마련, 3. 기존 공공 서비스 조정 및 간소화, 4. 농촌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함. 미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실험적이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 발표) 미국은 농촌 파트너 네트워크(Rural Partners Network, RPN) 및 농촌 데이터 게이트웨이(Rural Data Gateway)라는 두 가지 새로운 혁신 정책을 소개함. RPN은 농촌 지역 사회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농촌 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과 자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간 연합 프로그램임. RPN은 NGO와 협약을 통해 행정부가 바뀌어도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음. USDA가 담당하는 농촌 데이터 게이트웨이는 농촌 프로젝트에 대한 USDA 데이터를 파트너 기관 및 농촌 지역 사회 주민들이 더욱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자원임. 특히 지역 및 지역 경제에 대한 모든 지원 현황을 보여주는 투자 대시보드(investment dashboard)를 통해 다른 주, 카운티 및 의회 지역구에 걸친 추세를 분석할 수 있으며 실제 개선 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한국 발표) 농촌 혁신 사례로 시골을 살리는 작은 학교, 서하초등학교 사례를 공유함. 함양군에서도 가장 작은 서하면에 위치한 서하초는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가 학교와 마을 주민의 힘으로 극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었음.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던 서하초는 도시에서 시골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을 공약하여 지역기업 및 함양군청과 함께 서하초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 지역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기업, 민간이 협업해 도시 지역의 가족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일자리, 주택, 교육을 엮어서 거주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였음. 그 결과 전교생이 2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는 50여 명이 새로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지역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환경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달성한 본 사례는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모델에 있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프랑스 발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것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현재 국토 수준의 예측은 로컬 보다는 주로 지역(regional)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터키 발언) 농촌 지역 현황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것은 데이터의 부족과 관련이 있음. 터키의 경우 일부 지역은 매우 혁신적인 데 반해 그렇지 못한 지역이 많으며 혁신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본 발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로컬 자원을 활용한 혁신이 추구되어야 함. 농촌 지역의 자원으로 기존 농업 외에도 전통적 지식, 역사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 자원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무엇보다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 산업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함
- (독일 발언)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구조 및 기업 유형이 농촌 지역의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동의함. 지리학적 위치보다는 지역별로 다른 문화, 기업의 특징 또는 유형이 중요한 것은 상이한 인구 및 기업 유형별로 마주하게 되는 도전과제가 다르기 때문임
- (Secretariat 발언) 농촌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다 포괄적일 필요가 있으며 실험적 접근 방식을 도모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과의 협력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지역사회 자체로는 규모가 작으므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4) [Item 5] Environmental dimension of rural well-being - ESG to deliver well-being in rural regions (15:00-16:00)

- (Secretariat 발표: Private Sectors' ESG Activities for Well-being in Rural Regions) 투자 및 정책에 있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프레임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기업들이 ESG를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의 수요임. 자원이 풍부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ESG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밀도 경제와 소규모 내부 시장의 환경속에서 이러한 지역의 기업들의 장기적 투자는 지역사회 및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예를 들어 다음 발표에서 다룰 서드베리시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네랄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미네랄 자원은 특정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원이 공간적으로 특정 농촌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임. 농촌 지역 내 ESG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조정(coordination)의 강화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영향은 피하고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로컬 수준에서 현지 맞춤형 지침이 표준의 수립과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이익공유협약(benefit sharing agreement) 마련이 필요함. ESG 관련 다음 논의는 광산 지역 원주민 사회 웰빙을 주제로 10월 캐나다에서 진행될 예정임

- (캐나다 발표: City of Sudbury의 ESG 성공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부에 있는 서드베리시는 글로벌 광산 허브로 최대의 종합 광산 단지가 자리 잡고 있음. 9개의 광산이 있으며 2개의 광산이 개발 중이고 300여 개의 광업 부문 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서드베리시는 광산 농촌의 우수한 ESG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음. 연방정부 및 시 당국은 기업들이 지역 커뮤니티 및 원주민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그 결과 채굴 회사와 지역사회는 45년 이상 협력하여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3,500 헥타르 규모의 재녹화(re-greening) 우수 사례를 만들어 냈. 그리고 이러한 성공 경험은 지역의 자부심과 연대감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였음. 특히 원주민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으며 관계와 신뢰 구축, 기술교육, 인재 유치 및 이탈 방지 등의 효과를 달성하였음. 미래 세대를 고려한 선제적 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음
- (불가리아 발언) 지역의 자원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위한 지역의 환경도 매우 중요함. 기업의 잘못된 투자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 발언) ESG에 있어서 기업의 선의를 기대하곤 함. 한국의 경우 (주)포스코, (주)선양은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음. 한국 정부는 새로운 민관 협력을 통해 시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관광객 등에게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음. 한국 정부는 지역 내 시장, 지식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성공 사례를 곧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46차 지역지표(Territorial Indicators)작업반 회의 (WPTI)

1. 회의명

- 제46차 지역지표작업반(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4년 5월 13일(월), 9:30 ~ 18:00
- OECD Room CC5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송혜연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담당관 차시현 주무관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정민기 부연구위원

4. 주요 주제

- 지역과 도시 내 소득 불평등
- 대중교통 시스템 및 접근성
- 인터넷 환경과 속도
- 사회이동 및 기회균등
-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 지자체 및 로컬 데이터 플랫폼
- 도시 매력도 측정 툴
- 지역에서의 기업과 성장

- 비도시 지역의 접근성, 기능성, 서비스 공급

5. 주요 논의내용

(1) [Item 1] Opening session (09:30-09:45)

- (지역지표 작업반 의장 알렉산드로 알래시아) 35차 지역지표작업반 개회, 참여국들에게 환영 인사,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국들 모두에게 회의의 룰과 회의 개요 등을 설명
- (CFE 디렉터 나딤 아마드) 지난 OECD Ministerial Council Meeting 및 지역지표 작업반의 핵심 의제들에 관해 설명
 - 많은 핵심 우선 사항들을 재강조하는 반복을 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등 중요한 사항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음
 - 큰 우선 사항들이 OECD회원국들의 의제에서 점점 제외되고 있음
 - 지역지표 작업반에서 이러한 의제들을 다뤄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도 핵심 의제로서 계속해서 언급될 것임
 - 따라서 지역지표 작업반 회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존 회의들의 의제들을 두루 가로지르는 역할(transversal role)을 하고 있음
 - 투어리즘이나 중소기업(SMEs) 같은 비즈니스 활력(business dynamism)에 관한 의제들도 다뤄질 것임
 - CFE에 의해 제공되는 네 개의 위원회에 의해, 공간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의제들을 가로지르고 확대해나갈 것임
 - 논의되는 전환들에 의해 일어나는 일자리 전환(job transition)에 관해서도, 더 많은 기회들을 강화해나가며 발생 가능한 위험(risk)에 관해서도 평가를 해나갈 것임
 - 국가적 정의(national definitions)에 관해서도 찬사를 보냄. 더욱 커지는 국제적 비교 가능성(international comparability)에 관한 의의를 제공함

(2) [Item 2] Living standards and equal opportunity in regions and cities (09:45-10:45)

(2-1) [Item 2.a] Inequality, housing and accessibility to services and public transport

- (Secretariat) 새로운 버전의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개요 설명
 - 두 개의 챕터가 이미 지난 11월 회의에서 소개됨
 - 업데이트된 내용을 오늘 회의와 가을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
 - 되도록 최신 정보를 포함하여 보여주기를 원함
 - 5개의 페이지로 구성: 1) 지역 내·도시 내 가구소득 불균형, 2) 지역 내 건강 인구 및 실행 가능한 보건 체계, 3) 도시 내 양질의 대중교통, 4) 모두를 위한 서비스 및 생활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건기 좋은 도시, 5) 지역 내·도시 내 양질의 인터넷 연결
 - 주택은 최신 정보 및 중요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경제적 성과 부분으로 이동

[Item 2a 발표: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4]

- 지역 내·도시 내 가구소득 불균형
 - 어떻게 개인 및 도시에서 소득 불균형이 발생하는가를 보고자 함
 -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활용했지만 대부분 지역 내 개인 사이의 불균형에 초점을 맞춤
 - 대도시의 가구별 소득 불균형에 첫 번째 초점을 맞춤
 - 이에 관해 23개 OECD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지만 2022년까지의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한 상황임
 - 최신 자료에 의하면 불균형은 높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음
 - 소득 상위 20%의 가구들은 하위 20%보다 6.7배의 높은 소득을 가짐
 -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코로나 기간에도 어떠한 변화도 감지하지 못했음
 - 발표자료 그래프의 오른쪽에 있는 점들의 클러스터는 매우 높은 불균형을 보여줌
 - 이러한 불균형 집종의 대부분은 남미 국가의 지역들임
 - 다른 한편으로 몇몇 유럽 지역들의 불균형 증가를 볼 수 있는데, 수도(capital city)를 포함함
 - 예를 들어 보고타는 12에서 16으로 수치가 증가했으며 굉장히 큰 수치의 증가임
 - 그러나 멕시코 같은 남미의 수도는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음
 - 슬라이드의 그래프는 상대적인 빈곤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가구 소득 불균형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줌
 - OECD국가의 10명 중 한명은 빈곤의 위협에 직면함
 - 젠더별 빈곤률의 차이에 초점을 맞춤. 수집된 데이터의 10개 지역 중 9곳에서 여성들의 빈곤 위협이 남성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격차(gap)는 상당히 높으며, 불균형 수치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5% 포인트 이상 젠더 격차가 높게 나타남
- 이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유한 지역의 15%를 차지함

- 통근지역의 소득 집중

- 도시 내 부유한 계층과 빈곤한 계층 사이의 소득에서 다른 관점에 주목하고자 함
- 이전 프로젝트인 ADS에서 지방자치 레벨의 소득을 수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
- 도심에서 통근지역들(commuting zones)을 비교하여 샘플의 평균값을 도출
- 통근 지역의 소득이 도심보다 5%가 높게 나타남
- 15개 중 11개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 브뤼셀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줌. 따라서 브뤼셀의 통근 지역이 도심보다 훨씬 부유한 소득을 가짐
- 그러나 모든 수도에서 이런 경향을 가진 것은 아님
-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13개 중 9개의 수도에서 통근지역의 소득 우위 경향을 보였으며, 여기에는 런던과 스톡홀름이 포함됨
-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보면, 부유한 도심 지역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크기의 많은 도시들에서 도심보다 소득적으로 부유한 통근지역이 나타남

- 지역에서의 건강 인구 및 보건 시스템 수행 17:25

- 5가지 관점에서 헬스케어 이슈를 분석했으며 토지영역의 관점(territorial perspective)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함
- 우리가 찾은 결과는 도시에서 먼 지역일수록 그들이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은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기대수명에서 격차가 보여짐
- 외딴 지역(remote regions)의 평균수명은 대도시 지역들(metropolitan regions)보다 2년이 짧았으며, 만성병의 위험 또한 더 높게 나타남
- 외딴 지역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자원은 오히려 더 부족했음
- 보건의 질도 특히 중요한 부분임.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요소들이 질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의 신호임
- 우리는 현재 지역을 관통하는 헬스케어 질의 차이점을 측정하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도시 수준에서 각 국가들의 질적 만족도를 측정한 새로운 소스를 찾음

- 이를 통해 도시지역의 주민들과 비교하여 비도시 지역 (rural areas)의 주민들이 느끼는 불만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러한 그룹은 주로 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춤
 - 그래서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의 병원 접근성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연구질문으로 삼음
 - 거주하는 정착지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정도에 따라 그룹들을 변수(대도시 거주, 소도시 거주, 비도시 거주)로 설정하고 진행함.
 - 예상했던 대로 비도시 지역의 그룹에서 접근성이 좋지 않게 나타남
 - 그리스, 스웨덴, 캐나다와 같이 영토가 크고 인구 밀도가 낮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차량으로 45분 이내에 병원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음
 - 하지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의 정착지를 살펴보면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강조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45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캐나다에서는 오직 13%만이 가능했음
 - 따라서 두 그룹 모두 소도시 (town)에 살고 있지만 병원 접근성 측면에서는 큰 격차를 가지고 있음.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상황 (overall picture) 보다는 도시간 비교가 더 나은 비교가 될 수 있음
- 도시에서의 양질의 대중교통
 - 대중교통은 지역 및 도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되도록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임
 - 우리는 대중교통 정류장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보았음. 지도를 통해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10분만에 도보로 접근 가능함을 측정해보면 OECD 도시에서 10명 중 7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적으로 유럽,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를 살펴봄
 - 아메리카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낮지만 도시 내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남미의 교외 도시지역 (urban parts of suburbs)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오직 30%만이 도보로 10분 만에 대중교통 정류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유럽은 80% 이상이 가능했음
 - 도시 내에서 대중교통 공급에서 뿌리 깊은 구조적 차이가 있음
 - 마지막으로 운송실적 (transport performance) 을 살펴봄
 -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량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30분 동안의 동일한 이동 (journey)

을 비교하면, 대중교통 이용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0분 이동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관심이 많음

- 대중교통의 경우 두 가지가 모두 좋은 효율을 보여줌.
- 대중교통 공급이 다른 수단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비율은 100%에 가까워야 함. 그리고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수도에 대한 가치(value for capitals)를 강조하는 것임
- 우리는 수도가 일반적으로 도시들보다 접근성이 더 좋다는 것을 발견함
- 예를 들어 로마, 멕시코 시티, 더블린은 운송 효율성 지표에서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음
- 반면에 마드리드와 보고타와 같은 다른 수도들은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다음으로 우리는 도시의 보행용이성(walkability)에 초점을 맞추며 주로 도심을 대상으로 함
- 그래서 서비스의 제공(provision of services)은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밀집된 환경(dense environments)이어야 함

● 도보거리 내의 서비스 및 편의시설 접근성

- 짧은 도보거리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일 서비스와 편의시설에 접근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함
- “15분이면 당신은 학교나 보육시설에 도착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도시의 1/4의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함
- “당신은 약국에 도착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는 1/3의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함
- 도시의 노년층 인구 비율인 36% 중에 17%가 아니오라고 대답함
- 따라서 차량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룹의 이동성(mobility)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이 지표에서 OECD 도시들의 많은 노인들이 농부(farmers)에게 걸어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15분 이내에 도보로 녹지에 접근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1/4의 사람들이 아니오 라고 대답함
- 여기서 우리는 도시의 소득과 녹지 접근성의 관계를 살펴봄
- 그리고 우리는 체계적인 관계(systematic relationship)를 찾지는 못했지만, 프랑스나 미국 같은 일부 부유한 국가들이 녹지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도시의 하위 격차(sub gaps)도 살펴보았음
- 도보로 150분 이내에 학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36%에 불과함

- 이는 도시 규모에 따른 패턴을 다시 볼 수 있는데, 도시가 커질수록 도보 접근성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

- 비도시 및 소도시에서의 인터넷 환경

- 비도시지역(rural areas)과 도시지역의 고품질 인터넷에 관한 발표로서, 2023년 1분기 자료를 분석하여 시간대별 인터넷 속도(broadband speed)의 진전을 추적했음

- 2021년부터 비도시지역의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코로나 시기에 인터넷 관련 시설의 투자 때문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는 도시와 같은 다른 유형의 정착지와의 격차를 줄이기에 불충분함

- 코로나 시기를 포함한 지난 5년 동안 인터넷 속도가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소도시와의 흥미로운 융합 징후도 발견됨. 그러나 대도시도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소도시에서 가장 큰 발전을 보인 국가인 콜롬비아는 속도가 5배 증가함

- 하지만 동시에 대도시에서도 속도는 2배 증가했으며, 여전히 대도시 대비 소도시의 성능 격차는 유지되고 있음

[Item 2a 토론]

- 스웨덴

- 첫 번째 의견은 도심과 교외 지역의 소득수준에 관한 것임. 만약 도시지역이 더 작다면, 더 부유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함. 이 점을 주목해야 함.

- 두 번째 의견은, 만약 당신이 앞에서 논의된 모든 것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로 선택했다면, 당연히 보육시설도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이는 당신이 빈곤함을 의미하지는 않음

- 세 번째는 인터넷 접속(internet access)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예상된 패턴(expected pattern)이라고도 부름. 스웨덴의 경우, 쇠퇴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로 구분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실제로 인터넷 접속 및 속도에 따라 지자체의 성장이 관련이 있는지를 보았음

- 실제로 쇠퇴, 평균, 상위권 지자체 간의 격차는 놀라울 정도로 벌어지고 있었음

- 이것은 단지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대결, 즉 도시의 크기 차이가 아니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함

- 유럽연합

- 당신이 연구를 통해 봤던 것이 좋은 결론의 멋진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조화를 위한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것이며, 모든 진전을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쁨. 이는 매우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함.
- 제 의견은 보고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과제에서 우리의 우선사항들이 무엇이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임
- 이는 특정 편의시설 또는 서비스에 근접하여 거주하는 인구의 근접성 (proximity) 또는 비율에 대해 상당한 분석을 이루었다는 점에 기반한 의견임
- 만약 당신이 외딴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많은 것들이 가까이에 없을 것임
- 이러한 경향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고 그다지 흥미롭지 않음. 우리가 변화하고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반영 가능한 충분한 결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 (prescription) 을 가지고 오는 복잡한 작업의 시작이 더욱 필요함

- 독일

- 어디에 지역적 격차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독일의 헌법에서 생활조건 (living conditions) 은 동등해야 함
- 지난 60-80년간 지역적 차이 (regional disparities) 속에서 살아오고 있음
- 독일의 시스템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불만족이 불러일으킨 지체됨 (lagging) 이 이제 는 정책에 의해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함
- 이러한 불균형 (disparities) 은 항상 받아드려지긴 했었지만 이젠 더 이상 용납되지 못함
-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우익 유권자들 (right wing voters) 이 있는데 이건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임
- 그래서 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과는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됨
- 다른 국가들을 위한 최적의 사례 (best practices) 가 무엇인지를 조사해야 함

- President

-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통계와 정책 사이의 차이 (distinction) 이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임
- 통계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무엇을 측정할지 고민하는 것이 지역지표 작업반의 주요 목표

라고 생각함

-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할 수 있음

- 스웨덴

- 차이가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어떤 현실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정책 부서의 영역임

- 통계 부분, 측정 부분, 규범적 정책 부분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함

- 몇가지 흥미로운 이슈들을 나열하고 몇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결정을 내리거나 공공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유로연합

- 전적으로 동의함. 우리가 관행적 영역에 들어가는데로 바로 정책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음

- 그러나 본 위원회 (지역지표 작업반)와 지역개발정책위원회 (RDPC)는 보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다루고 있음

- 분명히 나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일한 유형 분류 체계 (typology)를 사용하여 비도시 지역의 축은 무엇인지, 대도시 지역의 축은 무엇인지에 관한 힌트를 암시하기 시작함

- 우리는 통계 공동체 (statistical community)로서 빈곤 (poverty)과 같은 것들을 정의함

- 빈곤을 정의한다면 서비스 접근성의 기준점 (threshold)을 정의하기 원하십니까?

- 만약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적 맥락과 장소기반 측면을 고려하여 다르게 또는 개별적으로 정의해야 할 것임

- Presidnet

- 이견이 없으면 본 문서의 일부 (part of the document)를 승인하겠음

(2-2) [Item 2.b] CFE contribution to the OECD Observatory for Social Mobility and Equal Opportunity

[Item 2.b 발표: CFE Work on Social Mobility and Equal Opportunity]

● 프로젝트 개요

- 기회의 평등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만드는 핵심임
- 나뉘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화와 같은 메가 트렌드들은 사회이동(social mobility)에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나 팬데믹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음
- 사회이동의 동인(drivers)과 역학(dynamics)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발전시키고자 함
- CFE는 사회이동과 기회균등에 관한 OECD의 관찰에 기여하고 있음
- 이는 사무총장의 자금배분(allocation of funds)에 의해 지원을 받는 사업임

● 불평등 및 경제적 기회의 지리학

-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불평등 및 경제적 기회의 지리학임. 지역적인 차원의 불평등 및 기회 접근에 대한 새로운 지표들을 개발함으로써 본 작업에 기여할 예정임. 공간 전반에 걸친 불평등의 동인(drivers)을 이해하거나 불평등을 맵핑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이나 교육 등과 같은 측면의 조사로 확장해 나갈 것임

● 불평등 장소 및 불공평한 결과

- 두 번째 프로젝트는 불평등한 장소 및 불공평한 결과임. 지리적 이동성과 지역조건의 중요성에 관한 분석 작업으로서 이것이 소득 및 교육 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춤. 네덜란드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매우 풍부한 행정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임
- 세분화된 데이터(granular data)를 통해 우리가 사용할 사회적 공간 규모의 중요성을 분석할 수 있음. 데이터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케일(동네, 통근 지역 등)에서의 로컬 상황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지방(provinces)이나 지역(regions)의 행정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임
- 데이터의 두 번째 장점은 연도와 위치에 따라 개인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임. 개인이 살고 있는 현재 위치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줌. 성장했거나 거주했던 곳의 개인과 다른 곳으로 이주한 개인의 결과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음

(2-3) [Item 2.c] Digital divides: updates from horizontal CFE work

[Item 2.c 발표: Digital divides: Improving Connectivity Horizontal Project
Going Digital Phase IV Updates]

● 프로젝트 개요

- 인간 중심 디지털 변화(digital transformation)의 세 가지 기둥이 있음
-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디지털 장치임
- 둘째로 기술 거버넌스와 디지털 격차의 트윈 전환에 관한 것임
-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주요 목표가 있으며 이는 공동 작업임
- 첫 번째 주요 목표는 공간적 연결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화로운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것임
-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연결성 없이는 디지털 변화는 불가능함
- 두 번째 목표는 접근성 분열을 연결하기 위한 증거 기반 정책 (evidence-based policies)임

- OECD국가들의 장소간 절대 격차

- 가장 처음 관찰한 것은 장소간의 절대 격차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OECD국가들간에도 차이가 큼을 의미함
- 과거에도 상대적인 격차를 관찰했음. 실제로 다운로드 속도의 중간 고정값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보다 50%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 OECD국가들의 절대적인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41MB였음. 칠레, 미국, 프랑스, 덴마크가 가장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보여줬지만 몇몇 다른 국가들은 속도가 매우 낮았음
- 우리가 국가 내에서 관찰한 것은 디지털 인프라의 품질도 평균적으로 다르다는 것임
- 2023년의 4분기에,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는 대부분 대도시 지역이었으며 평균 153MB로 나타남
-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절대 속도의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임
- 더 높은 품질의 인터넷 속도 향상이 관찰되기도 하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격차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

- G20 국가들의 성과

- G20국가들의 경우, 여기서 우리가 관찰한 것은 2023년 4분기의 각 국가 내 평균 분산 (average dispersion)이 OECD국가들과 비슷하지만 장소 간 차이가 더욱 크다는 것임

[Item 2.c 발표: Housing and Transportation Affordability Index]

- 프로젝트 개요

- 통계적 스캐너를 개발했는데, 균등한 기회 분석 프레임워크에 매우 잘 맞음

- 주택교통부담지수(housing and transportation affordability index)를 개발했음
- 부담가능성을 더욱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교통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
- 캐나다의 주거비와 교통비를 모두 살펴봄
- 모두 알다시피 주택의 가치는 토지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해당 토지의 입지에 의해 결정됨
- 접근성이 낮고 교통비용이 높은 토지의 가치는 아마도 낮아질 것임
- 따라서 주거비와 교통비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됨
- 전체론적인 방식에서 부담가능성 측면을 포착하고자 함

● 연구방법론

- 주거비와 교통비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됨
- 지리적 관점에서 진행함
- Aggregate dissemination area level이라고 부르는 세분성(granularity)과 기밀성(confidentiality)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찾았음
- 주택 구성요소의 경우, 월별 공유 비용을 세전(before tax income) 가구로 나눈 값을 사용함.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2021년 미시적 인구 조사에서 나온 것을 활용함
- 차량 소유 비용에 관한 서비스를 대안적 데이터로 이용해야만 했었으며, 이는 캐나다 자동차 협회의 외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된 수치임
- 그리고 통근자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차량 소유비용에 대한 제3의 데이터를 다시 사용함
- 캐나다 전역에 대한 대중교통 당국의 대중교통 비용도 포함시켰는데, 이는 다시 인구 커뮤니티 데이터와 다시 결합시켰음

● 결론

- 일반적으로 지역의 부담가능성은 예상대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지역의 확산 및 부담가능성도 마찬가지로 감소함. 따라서 주변지역(peripheral areas)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줄어들음
- 단순한 주택비용보다는 주택교통지수를 통해 지리적 위치에 기반하여 가구 지출의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함
- 주변지역의 비교우위 감소와 함께, 교통비용을 추가하면 일부 주변지역은 도심 위치와 동일하거나 더욱 비싸짐
- 주택교통지수는 캐나다 전역을 대상으로 계산되었음

- 2021년 인구조사를 모델링하여 가구 지출 조사 데이터 및 교통비용의 연간 업데이트를 개발
- 주택과 교통 정책의 설계 및 분석 도구

[Item 2.c 토론]

● 영국

- 세 개의 발표 중 첫 번째에 관해 몇가지 의견이 있음
- 양적인 부분과 접근성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 관해서 논의한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임
- 노동시장과 교육 같은 문제에 관해 생각할 때, 영국의 사례와 많은 관련이 있음
- 교육에 대한 접근 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나 장소에서 제공되는 질이 문제가 됨
- 영국에서 청년층이 대학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음
- 그 장소에서 청년층이 어떻게 지내는지? 대학교육을 받았는지? 그들이 떠났는지 아님 머물렀는지?
- 장소에서 청년층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함

● 유럽연합

- 두 번째 발표에 관해 짧은 코멘트를 하고자 함
- 격차(disparities)에 관해 의견을 드리고 싶음
- 절대적 격차(absolute disparities)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함
- 상대적 격차(relative disparities)를 측정해야만 함
- 절대적 격차에서 인터넷 속도의 급속한 증가는 아주 논리적인 현상임
- 반면 상대적인 불균형이 증가하는 경우는 우려되는 상황임

● 스웨덴

- 스웨덴에 있는 산에 갔었을 때,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었음
-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왜냐하면 이것

은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

- 안타깝게도 스웨덴에서는 소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지만, 이것은 교통비용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시간 비용까지 포함함
-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통근하기 위해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생각해야 함

- 포르투갈

- 사회이동과 글로벌 기회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음
- 2016년 이후로 포르투갈 세무 당국에서 소득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 로컬 및 지역 간 레벨에서 소득 이동(income mobility) 기반 대칭적 지표에 관해서 2020년 프로젝트를 진행했음
- 매년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왔으며 기간에 따라 사람들을 추적할 수도 있음
- 90%의 지자체에서 소득 격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연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결론에 접근할 수 있음. 이는 특정 집단의 데이터(sectional data)를 다룰 때 가능함

- 독일

- 사회 이동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함
- 제가 이해한 바로는 로컬 또는 지역 맥락이 매우 강조되었음. 하지만 국가적 맥락이 멀티 레벨에 해당되는 거 같음
- 공립학교들이 나쁘다면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가게 됨. 이 점에서 저소득층을 고려할 수는 없나?
- 이것은 제 질문이며 인터넷 격차에 관한 것이기도 함

(3) [Item 3] Regions and cities in the net-zero transition (11:15-12:00)

(3-1) [Item 3.a] Regions and cities tackling the climate emergency

[Item 3.a 발표]

- OECD지역들의 기온 상승 문제

-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가까이 높아짐
- 2023년은 OECD 지역들의 10곳 중에 3곳에서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됨
- 대부분 극지방과 시원한 지역들이 특히 영향을 받았음
- 빙하가 녹으면 다량의 메탄 및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영구 동토층(permafrost)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극심한 온도 노출 측면에서 건조한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영향을 받음
- 기후변화 시나리오
 -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자 함
 - 이것은 저배출 시나리오에 관한 예측임
 - 호주, 멕시코, 콜롬비아의 많은 지역들에서 추가로 60일 이상의 더운 날들이 예측됨
 - 이는 석탄 연료 개발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다량 배출 시나리오의 상황임
- 제로 배출 달성을 향상 OECD지역들의 성과
 - 2022년에는 1990년과 비교하여 60% 이상 높은 수준의 배출량을 기록함
 - 많은 도시 지역에서 2050년까지 제로 배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
 - 이를 위해 2030년까지 OECD지역의 80%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임
- 여전히 높은 배출량
 - OECD지역의 60%에서 감소했으나 여전히 1인당 배출량이 높음
 - 지난 10년 동안 배출량이 증가한 일부 지역도 있었음. 예를 들어 미국 알래스카와 호주의 북부 지방임
- 해결책
 -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려면 먼저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를 시작해야 하며 산업 부문에 공급되어야 함
 - 대부분의 OECD지역(10개 지역 중 7개)에서 저탄소 전력생산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그래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탄소 전기 비율의 변화를 보여줌
 - 주택에서는 화석 연료 난방 시스템을 저탄소 대체 에너지로 개조하는 조치가 가능함
 - 하지만 비도시와 도시 사이의 탈탄소화 경향은 차이를 보임
 - 그래프는 도시화 정도에 따라 난방에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 소스 분포를 보여줌
 - 석유와 석탄 난방 시스템은 비도시 지역에서 더욱 일반적임. 특히 체코,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높게 나타남

[Item 3.a 토론]

● 유럽연합

- 장벽 변화 및 인구 변화에 관한 발표에 대해 의견이 있음
- 많은 오해 (misunderstanding) 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모든 OECD국가들에서 비도시지역에서 1인당 건축 면적이 가장 높다는 명확한 패턴이 있음
- 그래서 토지이용에 관한 가장 큰 위협이 도시에서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음
- 반면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택이나 기반시설로 전환할 토지에 대한 수요가 적음
- 사실 도시는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잘못된 메시지를 반복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함

● 스웨덴

- 모든 국가들이 전기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할 만큼 충분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함
- 또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석유 생산의 수입을 통해 전기차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음
- 그래프의 극단에 위치할 국가들은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좀 더 강력한 논의가 필요함
- 충분한 토지 혹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안이 필요함

● 독일

- 유럽연합의 의견에 동의함
- 예를 들어 자본화된 농촌 지역당 도로화율이 더욱 높음

● 유럽연합

- 우리는 여전히 농촌 지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함
- 토지를 커버하는 vertical 방식 필요
- 현재 발표자가 보여준 지도와 지표는 공식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결과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움
- 훨씬 간단한 자료 사용이 필요함

(3-2) [Item 3.b] Advances on emissions data for regions

[Item 3.b 발표: Insights on the Emissions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EDGAR)]

● 책임 (accountability)

- OECD국가 및 그밖의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공간적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론에 대해 발표
-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기후 전환점 (climate tipping points) 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 우리는 또한 지역 (regions) 과 도시가 그 중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음
-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상승 정도에서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변화는 경제 역사상 그 폭과 속도 측면에서 전례가 없었음
-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지역과 도시 전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함
- 이를 위해 생산 폐기물의 공간적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한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의 공동 연구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했음

● EDGAR

- EDGAR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분산된 배출 수학 (spatially distributed emission maths) 을 제공하는 유럽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글로벌 인벤토리임
- EDGAR의 주요 특징은 월드와이드 커버리지 및 글로벌 일관성임
-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ITCC 지침을 기반으로 한 일관된 방법론은 UN 기후변화 협약의 공식 보고와 비교하여 독립적인 견해를 제공함
- 이러한 방법론 덕분에 정책적 의무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

(4) [Item 4] Break-out sessions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territorial statistics (12:00-13:00)

[국가별 그룹 토론]

● 그룹1

- 인구등급별로 얻을 수 있는 인구 데이터의 개수에 대해 논의했음
- 실제로 그리드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전체 인구로 시작했고 연령, 성별, 출생 국가별로 분류를 추가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과 교육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는 기밀유지(confidentiality)가 더 큰 문제가 됨
- 주택에 관해서도 논의했는데 특히 주택인구조사를 통해 많은 변화가 나타났음
- 건물 등록부나 세금 등록부 등을 만드는 경향도 있으며 주택에 관해 더욱 자세한 정보도 생성이 가능함
- 설문조사 응답의 지오코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했으나 참가자들의 전문지식에서 약간 벗어난 감이 있음
- 기능적인 도시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그리드 수준에서 도시화 정도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임
- 하지만 지자체를 통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

● 그룹2

- 세 가지 메인 토픽을 확인했음. 1) 지리적 변화. 2) 산업 분류의 변화. 3) 일반적인 외부 충격
- 우리는 산업 분류와 지리적 이슈를 좀 더 다루기 쉽다고 판단했음
- 해결책은 위계 변화에 따른 지리적 변화를 수행하는 것임
- 연구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추정분석, 영향분석에서 더미 변수를 숨겨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음

● 그룹3

-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저렴하고 빠르며 유연한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음
- 농업에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변화를 항공사진이나 위성 이미지를 통해 감지하거나 모니터링 함
- 70%는 정확하나 나머지 30%는 올바르게 분류가 되지 않음
- 에스토니아 사례는 건설정책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건물의 배출량 기반의 데이

터 프로세싱을 시도하고 있음

- OECD에서는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패턴감지를 하고 있음
- 위성이미지는 이미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새롭거나 저렴한거나 유연한 방법이 필요

● 그룹4

- 대안적 데이터 소스에 대해 논의했음
- 그룹4의 참여자들이 통계청, 연구센터, 정책 부서에서 왔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임
- 대안적 데이터 소스의 사용, 확장된 사용, 잠재적 사용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관점의 의견들을 통합할 수 있었음
- 한 가지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은 여전히 고르지 못한 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국가들의 상황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임
- 대안적 데이터 소스를 살펴볼 때 여러 조직의 관심 수준이나 통계 시스템 용량이 다를 수 있음
- 한 가지 직면하게 될 과제는 획득한 데이터의 소유권에 관한 것임
- 신뢰성 (reliability)은 새로운 데이터 소스의 확보에 관한 논의에서 제기된 또 다른 큰 이슈임
-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소스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해 많은 테스트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5) [Item 5] Regions, Cities and Local Areas data updates (14:30-14:50)

(5-1) [Item 5.a] The OECD Municipal and Local Data Platform

[Item 5.a 발표]

● 프로젝트 개요 소개

- 현재 구축하고 있는 더욱 세분화된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함
- 지난 몇 년간 공공에서 지역 플랫폼보다 더욱 세분화된 플랫폼의 요청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임
- 본 작업은 이미 지자체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이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위성 이미지 같은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민간 기업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

협하는 경우도 있음

- 브뤼셀의 경우 낮은 소득과 높은 불평등 가치가 모두 집중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음
- 행정단위 데이터
 - 정책상의 이유로 지자체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포함은 필수적임
 - 우리는 사용 가능하거나 국가 통계청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포함하고자 함
 - 기능적인 도시지역과 도시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단위와 도시화 정도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단위를 포함할 것임
 - 유럽의 경우 다양한 영역이 정렬될 예정임
 - 일부 국가들의 경우 여러 지리적 수준이 포함될 예정인데, 예를 들어 호주, 미국, 뉴질랜드의 경우임
- 방법론
 - 또한 고려해야 할 방법론적 측면은 지리적 조화에 관한 것임
 - 데이터의 과거 시계열을 구축하려면 이것을 고려해야 함
 - 특정 지역의 경우, 지자체나 지역이 분할되거나 기타 병합되면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지표를 재분배하기 위해 인구 분포 계측과 같은 보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임
 - 사용 가능한 최신 경계 시스템에 대한 지표의 시계열을 조화시켰음
 - 우리는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시작에 불과함
- 지역지표 및 인터페이스
 - 전체적으로 약 4개의 지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일부 주제는 다른 주제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음
 - 예를 들어 환경 및 기후와 관련된 수많은 지표들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교통 인구 역학은 소득과 노동에 대한 커버리지로서 매우 좋은 영역임
 - 개발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매우 직관적임
 - 다양한 주제를 탐색 가능하므로 다양한 장소도 탐색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비교 도구도 개발할 예정임

(5-2) [Item 5.b] The Regional Attractiveness Compass tool

[Item 5.b 발표]

● 프로젝트 개요

- 지역적 매력에 대한 interactive compass 틀에 관해 설명하고자 함
- 지역지표를 개발하려는 OECD의 노력과 함께, 어떻게 기존 지역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좋은 방식으로 변형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함
- 지역 매력도 방법론은 유럽 및 남미의 약 30개 지역에 적용되고 검증되었음
- 현재 우리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국제적 인재, 투자자, 방문자 등에 매력도 점수를 주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지역 매력도를 측정함
- 다양한 지역지표를 종합하고 지역 정책 입안자들이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 해당 지역의 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목적을 가짐

[Item 5.b 토론]

● 미국

- 흥미롭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 에이전시를 통해 미국 최고의 국립 연구소 중 하나인 Argon National Lab과 제휴하여 유사한 도구를 개발했기 때문임
- 이것은 경제개발역량지수임
-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역량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측정 기준을 뛰어 넘는 중요한 요소를 평가하는 도구 간의 유사점을 확인해서 좋았음
- 공개적으로 오픈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 기업가 정신, 개발 역량을 향상시키는 지식, 기술, 자산 및 자원을 평가함
- 이는 곧 경제개발 이해관계자가 경과된 시간에 따른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영향을 추적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위한 귀중한 통찰력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시계열 구성 요소를 통합할 것임
-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도구를 계속 유지하려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 스웨덴

- 몇 가지 질문이 있음
-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가?
- 아니면 한번의 업데이트만 가능한가?

- 매력도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요소라 생각함
- 이 두 가지를 분할하여 다양한 요소에 초점을 맞춰 장소 기반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

(6) [Item 6] Business activity in regions (14:50-16:00)

(6-1) [Item 6.a] Stimulating private R&D through public R&D in regions

[Item 6.a 발표]

● 목표 및 의미

- 우리가 할 일은 정부 R&D 자금조달에서 민간 부문의 추가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임
- 레버리지 비율, 즉 민간부문의 추가 자금조달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데이터 측면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음
- 남부의 국가적 수준의 R&D지출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큰 격차가 있다는 사실임
- 따라서 지출이란 R&D 노력을 실행하는 사람과 연구 개발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함

● 해결해야할 과제

- 격차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모든 국가에서 설문조사가 매년 실시되지 않기 때문임
- 관찰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수 기업에 너무 많은 R&D 노력이 집중되어 가치가 억압되는 특정 지역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함

● 데이터 생성 및 해결책

- R&D 자금조달은 기업이 R&D에 참여하는 경우, 전년도 및 다음 해에 발생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다년간의 노력이 필요함
- 이는 해당 지역의 다른 기업이 R&D에 참여하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음
- 그래서 긴 시계열 데이터가 필요함. 현재의 작업은 사전 추세를 기반으로 누락된 값을 대체하고 계량경제학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인위적으로 지속성을 생성하지 않도록 이러한 값을 대체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두 번째 문제는 하위 국가 수준의 R&D 지출 데이터가 있지만, 하위 국가 수준의 R&D

- 자금 데이터를 생성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것임
- 우리는 누가 R&D를 수행하는지 알지만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는 모름
-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부문별로 국가 수준의 R&D 자금을 사용하는 것임

(6-2) [Item 6.b] Firms and growth in regions

[Item 6.b 발표]

- 프로젝트 개요
 - 2021년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주요 목표는 장벽과 동인을 식별하는 것임
 - 분석의 레벨은 OECD 및 EU 국가들의 넓은 지역에 초점을 맞춤
 - 지방정부의 재정 접근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실행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 워크숍도 진행해 왔음
 - 또한 상업 데이터와 설문조사 데이터도 함께 작업했음
- 당면한 과제들
 - 관료주의, 금융 부패 및 접근이 실제로 도시 지역의 기업들에게 매우 시급한 문제임
 - 약 60% 이상의 지역에서 현재 운영에 있어 세무 행정 문제를 겪는 기업이 10% 이상임
 - 마찬가지로 약 절반의 지역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문제와 무역규제 문제를 겪는 기업이 10% 이상임
- 해결책
 - 첫째, 부패와 싸우는 것임. 이것을 기관 전반의 개선이라고 부름
 - 둘째,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거나 전략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임
 - 셋째, 부패방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 효과
 - 심각한 장애가 되는 파산기업의 비율을 10% 줄임
 - 평균 지역에서 약 2%의 투자 증가 및 혁신 장려를 의미함
 - 전체적인 효과는 지역 전체의 수준에서도 확인 가능함
 - 1인당 GDP에서 0.6% 정도의 지역경제 향상과 고용률 증가도 가져옴

[Item 6.b 토론]

- 미국 01:00:35

- 가장 최근에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이 있었음
- 특히 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과 2022년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해 미국이 처해있는 팬데믹 이후 생태계에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이 있었음
-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역 자금을 통해, 기업가 정신과 경제 회복 촉진에 큰 도움이 되었음
- 보조금, 대출, 기술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활성화 했음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직원을 위한 고속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 교육 등을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가능하게 했음
- 이것들은 지역 내 혁신 허브 및 엑셀러레이터의 생성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성장과 기업가 정신을 육성함

(7) [Item 7] Connectivity, functionality and service provision in rural areas (16:15-17:45)

(7-1) [Item 7.a] Functional area definitions

[Item 7.a 발표 1]

- 프로젝트 개요

- 이 프로젝트는 서비스 공급을 통한 비도시 정의 시스템(Rural Degree Systems)이라 부르며, 목표는 모든 OECD국가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기능적 정의(functional definition)를 개발하는 것임
-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 실제로 국제적 맥락에서 유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임

- 목표

- 첫째, 프레임워크 페이지와 매우 관련이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방법론에서 시작하여 일부 국가에서 개발한 내용을 검토하여 기존 정의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임
- 둘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론 초안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휴대폰 데이터와 같은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이를 검증하거나 현실적 점검을 실행

- 셋째, 방법론의 초안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글로벌 개발 추세를 식별하는 데 실제로 유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

[Item 7.a 발표 2]

● 데일리 시스템

- 데일리 시스템은 사람들이 매일 여행하는 지역을 설명함
-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면에 TL2 지역은 하나의 데이터 시스템 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음
- 행정구역의 크기도 국가마다 크게 다를 수 있음
- 기능적 도시지역은 여기서 정의하려는 것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농촌지역을 고려하지는 않음
- 어떤 공간적 기술이 우리의 목적에 적합한지를 결정함
- 데일리 시스템의 정의가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의함
-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코뮌과 같은 지역에서 시작함

● 방법론

- 노동시장의 영역이며 지역 간 통간 흐름을 고려함
- 그룹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곳에 살고, 그룹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일하도록 그룹을 형성함
- 많은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허브를 식별한 다음, 그리드 셀과 저지대에서 누락된 서비스 간의 운전 시간을 기반으로 나머지 지역을 서비스 허브에 할당함
- 마지막으로 도시 및 마을과 같은 인구 중심지를 식별한 다음, 운전 목록을 기반으로 주변에 그리드 셀을 할당하는 접근방식을 개발함

[Item 7.a 토론]

● 미국(온라인)

- 저는 비도시지역의 기능 및 상호작용을 정의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주로 기능적 농촌 지역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예정이지만, 제 의견을 보면 최고의 ADV와 노동시장 지역과의 연관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국토 전체를 포함하는 기능적 지역에 대한 분류임
-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도시 및 대도시 표준 검토 위원회가 미국 관리예산국에 제출한 보고

- 서에서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을 묘사하는 연구 프로젝트 구성을 권장했음
- 핵심 질문은 관련성이 있는 일련의 영역을 정의하고 해당 농촌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실제 기능적 관계를 반영하는 방법임
-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가가 이슈임
- 기능적 농촌방식의 장점 중 하나는 적용이 쉽다는 점임. 몇 가지 영역을 살펴봤을 때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을 알았음

- 독일

- 특히 ESPN의 것을 좋아함 왜냐하면 실증적 작업을 위한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부 편의시설이 부족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제공하고 농촌 지역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임
- 독일의 경우 중심지 이론을 사용하므로 추가 이점이 있는지 의심됨
- 우리는 공간계획과 정책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낮은 중간 지대와 높은 수준의 도심을 가지고 있음
- 이는 구역 경계를 넘나들며 구역 수준에서 대부분의 통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비교를 위해 농촌 지역에서 기능의 성능에 대한 새로운 통계를 추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한국

- 저는 한국이 전문가들을 이곳의 전문가 그룹에 배치함으로써 중요한 임무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음
- 그 이유는 한국이 기능적 영역을 지정하는 두 가지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임
- 첫 번째는 1980년대에 일어났고 두 번째는 21세기 초에 발생했음
- 두 번째 시도에서 제가 그 임무를 직접 수행했으며 전국 63개의 기능 지역을 지정했음
- 이러한 경험이 큰 프로젝트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두 번째 이유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이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했기 때문임
-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이 우리의 역할을 할당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 캐나다(온라인)

- 현재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역유형에 만족함

- 그러나 또한 지역 정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캐나다의 기능적 지역과 관련하여 OECD 전역의 모든 농촌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음
- 농촌 지역 사회 간의 실제 연결성을 반영하는 건전한 방법론과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함
-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연결된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고 있다는 실제 증거에 기초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음
- 또한 캐나다에서 중요한 통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역량 측면에서 회원국이 새로운 분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음

- 에스토니아

- 지금까지 에스토니아에서는 도시 농촌 유형을 개발해왔음
- 주로 도시 또는 비도시 또는 중간 유형의 지역 정착지임
- 또한 OECD 사례를 적용하기도 했음
- 몇 년 전, 국토 전체에 걸쳐 기능적 일상 활동 공간을 파악했음. 그러나 이 데이터의 활용은 최근 중단되었음
- 인구조사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기능적 생활공간에 대해서도 분석했음
- 실제 지역사회 흐름이나 인구 밀집 지역과 윈터랜드 사이의 기타 기능적 관계를 관찰에서 제외했음
- 그리고 각 인구 중심지의 실제 중심지 기능과 영토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전세계적으로 기능적이고 보편적이며 조화로운 문제를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에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것도 인정함

- 미국

-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나 특정 기관이 개입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해당 지역이 마음에 들 것임
- 이제 그들은 좋은 데이터와 좋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유형의 자기 정의를 기반으로 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우리 조직에 사례를 만들 수 있음
- 따라서 저는 미리 정의된 지역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피하는 이탈리아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것이 이전에 농촌 지역에 대해 들었던 것처럼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 확신

히 동의함

● 일본

- 농촌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
- 따라서 우리는 기능적인 농촌지역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현황을 정량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즉 교육, 보건, 교통 등의 서비스가 지역에서 충분히 제공되는지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능적 농촌지역에 대한 정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능적 농촌지역의 정의도 합리적으로 단순해야 함
-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사회가 줄어들고 버려지고 있음
- 이러한 과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
- 따라서 인구수, 지역사회의 활력, 농촌지역의 농지 및 기타 천연 자원 보존이라는 세 가지 측면 간의 관계를 정량화하는 것도 좋지 않음
- 일본은 이제 막 이런 종류의 분석을 시작했으며 우리는 기능적 농촌 지역에 대한 논의에 진전을 이루고 싶음

● 네덜란드

- 정의에 관한 것이 중요함
- 농촌사회와 도시 사회 사이의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매우 좋음
- 우리는 그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해야 함
- 네덜란드의 경우, 밀도가 매우 높으며, 한 시간 안의 거리에 농촌 지역이 많이 있지만 통계에서는 볼 수가 없음
-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특정한 좋은 정의가 필요함
- 이는 문화 기반의 차이도 있음을 의미함
- 이것은 꼭 통계적인 이슈가 아님
- 로테르담의 경우 작은 마을들이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음

(7-2) [Item 7.b] Services and public transport accessibility in rural areas

[Item 7.b 발표]

● 보고서 설명

-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보고서를 발표하고자 함
- 도시와 마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비하여 지역을 돕는 것임
- 보고서는 4개의 장으로 구성
- 첫 번째 장에서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분석할 기술개념을 소개
- 두 번째 장에서는 OECD국가 정착촌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설명
- 세 번째 장에서는 어떤 인구가 도시나 마을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중교통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을 분석
- 마지막 장에서는 유럽 정착지의 인구 변화를 살펴본 다음, 해당 도시 및 마을의 서비스 제공과 비교함

● 연구방법론

-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도시화 추세, 그리고 그것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책 결정에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분석
-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감소를 경험

● 데이터

- 단순히 도시화 정도의 정의를 사용하여 거주지, 도시, 타운, 마을 등을 식별하는 것이며 이는 인구 그리드 데이터에서 수행됨
- 31개 OECD국가들을 다루며 이동성 자체가 아닌 접근성을 고려함

● 접근가능성

- 정착지 내 서비스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 5개 주요 서비스인 약국, 학교, 은행, 병원, 대학교를 대상으로 함
- 마을이 평균적으로 두 가지 서비스 범주를 충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도시와 같은 더 큰 정착지에 도달하면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5가지 서비스가 모두 충족됨
- 도달 가능성을 위한 도시 접근성 측정이 중요하며 OECD국가 전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함

(8) [Item 8] Closing remarks (17:45-18:00)

제35차 도시정책(Urban Policy)작업반 회의 (WPUR)

1. 회의명

- 제35차 도시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Urban Policy)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4일(화), 9:00 ~ 17:30
- OECD Room CC7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오성익 기획관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송혜연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담당관 임현아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담당관 차시현 주무관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최은지 부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정민기 부연구위원

4. 주요 주제

-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도시와 국가 도시정책(Cities and national urban policies on the path to resilience)
- ‘OECD 도시정책 원칙’ 5년 이행 결과(Lessons from five years of the OECD Principles on Urban Policy)
 - ‘OECD 도시정책 원칙’을 활용한 사례 (Sharing experiences in leveraging the Principles)
 - 모로코의 국가 도시정책 리뷰 사례 (Spotlight on the case of the National Urban Policy Review of Morocco)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디지털화와 AI (Digitalis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promote more sustainable and inclusive cities)
- 넷제로 도시와 지역 (Towards net-zero cities and regions)
 - 기후행동과 회복력에 대한 국토적 접근 (Deploying and upscaling a Territorial Approach to Climate Action and Resilience)
 - 탈탄소 빌딩 정책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 다층적 접근 (Global Monitoring and Policies to Decarbonise Buildings: A Multi-Level Approach)
- 도시에서 가능성에 대한 접근성 확대 (Expanding access to opportunities for all in cities)

5. 주요 논의내용

(1) [Item 1] Opening session (09:00-09:15)

- (Secretariat & UN-Habitat: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3rd Ed.) 회원국들의 NUP 수립 및 추진 협황에 대해 조사한 서베이 결과를 공유함. 서베이 대상국의 80%가 NUP를 수립하였으며 60%는 명시적(explicit) NUP를 가지고 있음. 명시적 NUP는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유럽 국가의 대부분은 비명시적(implicit) NUP를 가지고 있음. NUP는 갈수록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주택과 같은 특정 주제에 치우쳐져 있음.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주택 정책과 도시 정책을 융합하는 시도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NUP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76%에 해당하는 52개국 이 NUP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토대로 증거에 기반한 NUP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기존 대비 더 많은 국가들이 SDG 11.a.1 및 NUA를 위해 NUP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스라엘 발언) 이스라엘은 명시적 NUP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1년 반 전부터 국가 공간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임. 국가공간전략계획에는 해당 문서가 NUP 수립을 위한 기초 문서로 활용될 것임이 명시되어 있음. 국가공간전략계획 수립 시 지난 회의가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전함
- (독일 발언) 독일의 경우 도시 정책은 정치적 약속 차원의 지침서에 불과해서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제 교류를 통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독일에서는 주택 문제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사안임. 따라서 주택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도시 의제를 압박하고 있으며 도시와 주택 정책을 일치시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음. 독일은 최근 도시 난방 계획(heat planning)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이를 기존 정책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 (불가리아 발언) 불가리아는 명시적 NUP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가 지역 공간 개발 컨셉이 존재함. 해당 컨셉은 다중심적(polycentric) 개발, 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적 투자, 주민들 도시 및 마을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자치단체별 통합 개발 계획 등이 반영되어 있음. 또한 여기에 OECD의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 (미국 발언) 미국은 20여 년 전에 NUP를 포기하여 비명식적 NUP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NUP의 주요 요소가 되는 정책은 이어져 오고 있음. 해당 리포트는 회원국들의 NUP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나 추후 후속 작업에서는 회원국들의 NUP의 효과에 대한 측정 및 NUP를 어떻게 발전시켜 오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면 좋겠음
- (에스토니아 발언) 에스토니아의 경우 도시 정책에 있어 기후 회복력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2025년 발효될 새로운 기후변화법을 보다 정교히 하였으며 해당 법은 에스토니아의 도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1년 전 챗터 구성을 수정하기 위해 2050 국가공간계획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기후 변화적응이 포괄적인 주제로 반영되었음
- (한국 발언) 도시회복력 관련 도시 정책은 무엇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기후 회복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적응 간의 균형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프랑스 발언) NUP는 이제 많이 발전하여 SDGs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프랑스에서는 도시회복력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통일부가 협력하고 있으며 그 외 문화부, 교육부와 같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극심한 폭염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프랑스의 경우 2차 국가기후적응계획(2018-2022)에 국토의 회복력 및 기후변화 적응이 주요 목표로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는 3차 국가기후적응계획 수립 작업이 진행 중임
- (콜롬비아 발언) 콜롬비아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2022-2023년 국가 개발 계획에서 회복력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또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국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Secretariat 발언)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또한 기후 회복력과 기후 적응의 연계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의 연계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정책에 대한 주택정책의 우위성, 변화에 대한 수용성 등에 대한 논의도 유용했음. 덧붙여 OECD-EC는 “Unlocking Potential

of Intermediary C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해당 보고서는 2026년에 출판될 예정임을 공유함

- (Secretariat 발표: Managing cities in crisis - post-pandemic pathways to resilience in complex times)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전 세계 위기 상황은 SDGs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수직적 협력을 통한 도시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특히 도시는 복잡성과 규모의 다양성 맥락에서 복합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 도시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기 및 장기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 마주하고 있는 복합적 위기의 정도에 대한 이해와 보다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 도시는 도시가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제 외에도 디지털 혁신, 세계화,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의 붕괴, 인구 변화, 민주주의 및 신뢰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 등에 의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에너지 쇼크, 탄소배출, 물가 상승 등은 격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과거를 돌아켜봤을 때 최근의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1.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2. 근접성은 이점이나 서비스 및 편의 시설 관리의 필요성, 3. 강력한 사회계약은 위기관리에 효과적임, 4. 국가적 해결책은 로컬 및 지역 상황에 맞게 확장되어야 함, 5. 중앙정부는 지역의 성공 동인을 활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6. 장기적 목표를 반영하는 단기적 대응 추진, 7. 다중심성 국토의 결속을 쉽게 해주는 디지털화, 8. 새로운 가치 사슬은 도시의 매력을 재고할 기회를 제공, 9. 위기 적응은 국토의 녹색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본 세션은 위기 상황에서 성공적이었던 경험과 정책적 교훈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임
- (일본 발언) 일본은 TOD 경험 사례를 공유함.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였음
- (이스라엘 발언) 팬데믹과 최근 전쟁 상황은 정책의 유동성과 민첩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음. 이스라엘은 당장 마주하고 있는 긴급 상황에 모든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 장기적 위기를 다루는 것에 대해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미국 발언) 미국의 경우 팬데믹 기간 중 공급망의 붕괴가 매우 큰 어려움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를 공포하였음. 지난 40여년간 기술 혁신은 해안가에 위치한 몇몇 지역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지역을 발전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해당 법안은 과학 및 기술 관련 투자가 국토 전반, 특히 제조업 쇠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 (영국 발언)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면에서 화상으로의 전환이 매우 큰 변화였으며 이

는 상업, 소비, 유통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유형의 건물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그 결과 건물의 용도에 대해 보다 유연적인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음. 또한 자택으로의 물건 배송 방식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 등의 이용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함. 무엇보다 주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 또한 두드러진 변화였으며 그 결과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지역사회 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디지털을 이용은 도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으나 동시에 건축 환경 관리에 관한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음

- (프랑스 발언) 팬데믹 기간 동안 다차원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프랑스 정부는 국토 전략을 단순화 하였음. 이를 위해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통해 여러 수행기관을 매개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였음. 또한 프랑스가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해 전에 회복력 계획을 수립하 바 있는데 무엇보다 팬데믹은 회복력 이슈에 있어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지구온난화 등 미래를 예측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터키 발언) 팬데믹을 통해 터키가 얻은 가장 큰 정책적 교훈은 하나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을 통해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음. 지역별로 다른 도전과제와 지역 간 격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교훈에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음. 도시회복력 이슈와 관련해서는 재해 발생 전 위험을 감소시키고 재해 발생 이후의 차원에서는 재난 지역에 4-5년 간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과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 및 재생하는 데 있어 역사, 문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발언) 팬데믹 이후 오스트리아는 위기 및 긴급 계획(Risk and Emergency Plan)을 수정했으나 향후 발생할 위기에 대한 예측의 한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음. 비엔나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많은 경제 인구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찾을지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임
- (한국 발언) 앞서 발표한 미국의 발표에서 미국은 향후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언급했는데 한국의 경험에서 반추하면 반도체 산업의 경우 대도시에 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음. SK의 경우 정부는 SK 반도체 공장을 지방에 설립하기를 원했으나 결국 서울 근교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있음. 추가적으로 최근 한국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산업의 변화, 기후변화의 위기 등의 상황에서 근접성(proximity)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 공간혁신구역(spatial innovation zone)를 조성하여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 및 밀집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음

(3) [Item 3] Lessons from five years of the OECD Principles on Urban Policy

(3-1) [Item 3.a] Sharing experiences in leveraging the Principles

- (Secretariat 발표) OECD 도시정책 원칙을 정립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칙 정립의 배경, 원칙 정립의 효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함. RDPC가 설립된 이래 1. 도시 및 국가 사례 리뷰, 2. 도시 관련 국제적 데이터셋의 구축 및 기능적 도시지역(FUA), 도시화 정도(degree of urbanization) 등 주요 개념 정의 및 방법론 수립, 3. 기후변화, 고령화 등 주제별 도시정책 분석, 4. 장관, 시장, 주제별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네트워크 제고 등 4개 유형의 결과물(outputs)을 만들어 왔음. 2018년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성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OECD 권고사항 88%가 실제 이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지난 세계도시포럼(WUF)에서는 이행 툴킷(implementation toolkit)을 발표하며 자체평가 프레임워크와 함께 원칙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관한 60개의 국제 사례를 수집하였음. OECD 도시정책 원칙은 여러 가지 충격과 개혁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로컬 레벨에서는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 팬더믹 상황에서 복구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국가 레벨에서는 폴란드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상호의존성 등의 원칙을 적용했으며 모로코의 국가 도시정책 개혁에도 적용되었음. 글로벌 레벨에서는 2023년 G7 위원회가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도 활용되었음. 원칙들은 전 세계 많은 국가도시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거의 60%에 이상의 국가들이 원칙을 국가 도시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EC의 요청으로 새롭게 시작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포용적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정책을 모은 개요서를 만드는 작업임. 또한 블룸버그의 요청으로 우수 도시 사례를 다른 도시에 적용하기 위한 툴킷을 만드는 작업임.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책의 형식과 관점이 상이한 것에 따른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정책 데이터베이스(urban policy database)를 구축하여 정책들을 하나의 허브(hub)에 모으고자 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가능성, 편리한 검색 방법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와 로컬 정책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상호검토가 완료된 문서 위주로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1년 후 다음 RDPC 장관급 회의 때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영국 발언) 데이터베이스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일지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프로젝트 수준에서 단순 결과물 외에도 어떻게 그러한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과정도 공유되면 보다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

- (이스라엘 발언) 주제, 규모 및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색 엔진이 구축된다면 데이터베이스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영국이 발언한 바와 같이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역자치단체 또한 중요한 사용자가 될 수 있을 것임. 더 나아가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 및 증거 기반 자료가 함께 반영되면 좋겠음
- (프랑스 발언) 좋은 정책의 사례는 매우 많으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더불어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 규칙 등 사후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단순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적 배경(contextualization)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모든 RDPC 회원국이 참여하는 장기적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함께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됨
- (미국 발언) 미국의 도시정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사례를 공유함. 미국은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에 있어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경험이 있음.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밀도, 접근성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 내에서 관련 연구 링크와 정책 실행에 반영된 지역 또는 국가적 조례나 법률 사례를 함께 제시함

(3-2) [Item 3.b] Spotlight on the case of the National Urban Policy

Review of Morocco

- (모로코 발표) 모로코의 주요 현황 및 현안을 공유하고 유용한 지식을 공유해준 OECD의 팀과 전문가들에게 감사 인사를 포함
- (Secretariat 발표: National Urban Policy Review of Morocco) 모로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 중임. 1975년 도시화율이 38%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2030년에는 7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도시에는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도시화는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빠르게 진행 중인 도시화에 발맞춰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음. 한편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균형, 슬럼 등 주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체계가 아직 불충분한 상황임. 모로코는 명시적인 NUP는 가지고 있지 않음. 모로코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른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도시정책을 재정비하였음. 모로코 도시정책은 11개 OECD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도시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도시의 경제 성장과 국토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지원,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집중, 도시와 농촌 간의 연계성 강화, 포용 도시(inclusive cities)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음. 모로코 도시정책에 대해 입주자를

정교화한 사회주택의 공급(better targeted social housing), 도시 이동성 제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관광부문 정책, 다양한 수준의 정부와의 조율, 정책 홍보를 위한 데이터의 활용, 혁신적 자금 지원 매커니즘의 모색,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등의 제언이 제시됨

- (한국 발언) 한국의 혁신 도시 조성 사례를 공유함.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소도시로 이전하면 혁신이 지방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음. 인구 4만여 명으로는 혁신 도시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한국의 이러한 경험은 도시 계획에 있어 인구 규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중소도시 개발에 있어 모로코 정부가 인구 규모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좋겠음
- (미국 발언) 모로코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이며 미국은 내진성을 위한 건축물 코드(building codes)에 관한 굉장히 많은 지침을 가지고 있음. 정부가 그러한 코드를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축 현장에서 그러한 코드가 강제력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임. 모로코의 주택 및 재난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강제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튀르키예 발언) 최근 두 차례의 지진을 겪은 튀르키예 입장에서 재난 위기관리에 있어 재난 관련 조정(coordination) 및 로지스틱 지원을 위한 재난 후 위기관리센터(post-disaster risk management center)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음. 아울러 모로코가 재난 후 로지스틱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고려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모로코 발언) 과거 지진 경험은 정책 프로그램에 혁신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모든 프로젝트를 디지털화되었으며,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농촌 주민이 통장을 개설하게 되었음. 재난 후 로지스틱(post-disaster logistics)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언 관련 이슈를 지속해서 검토하겠음. 지속가능한 재건에 있어서는 무료 건축 자문 서비스,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 등 지역 자원의 활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4) [Item 4] Digitalis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promote more sustainable and inclusive cities (14:00-14:30)

- President
 - QR코드로 접속하여 AI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할 것임
 - 화면의 두 가지 질문에 Yes or No로 답을 하면 됨

- 당신의 ministry는 도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가? (Yes 12, No 13)
-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가?
- 도시계획은 현재 건물 허가, 계획 절차, 교통에 대한 연구가 약간 우세하지만, 여전히 인프라의 모니터링에 대한 선호가 있음

- 발표자(CFE의 경제학자)

- 도시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기본적인 방법 및 아이디어의 적용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음
- 오늘 ChatGPT의 인터페이스에 관해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함
- 저는 비즈니스 및 SME에 관한 디지털 및 혁신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음
- 그래서 도시 정책 분야에 관해 테스트를 하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 ChatGPT에 도시정책 관련 질문들을 던져보고 실시간 반응을 시연함
- 첫 번째 교훈은 소프트웨어조차도 차이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님. 생성 AI 소프트웨어 자체의 경우도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움
- 둘째로 일상의 업무에서 사용 가능해짐
-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묻는 질문이 정확하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그만큼의 답을 얻을 수 있음

- 일본

- 현재 일본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음
- 3D 모델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PRATO 프로젝트임
- 여기에 AI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람의 역할을 자극하고 검증함
- 예를 들어 재난 관리 상황에서 건물의 대피 과정을 PRATO를 통해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함
- 따라서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AI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투명성, 사이버보안, 개인 데이터 보호 문제도 AI사용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임

- 미국

-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의 톨로서 AI개발에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들은 AI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들의 역할은 행정 기능에서 AI사용 사례들을 출판하는 것임
- 그러나 AI의 활용 범위는 그리 넓지 않음
- AI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기 전에 국세청(IRS)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HUD라 부르는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부에서 AI를 사용한 연구 실험을 수행했었음
- 보조금 수령자는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텍스트 기반 계획을 AI를 활용하여 실험적으로 데이터로 변환하였고 성과를 거둠

● 프랑스

-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더 나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에 있음
- 두 번째는 로드맵 프레임워크임. 지속가능한 시티 메니지먼트를 만들고자 함
-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이에 대한 부족한 스킬이 문제임
-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프랑스는 계속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 이스라엘

-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AI활용의 탐색단계에 있음
- 기획 행정(planning administration)에서 몇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했음
- 대규모 대중참여 캠페인에서 받은 응답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이었음
- AI는 많은 응답을 처리하고 다양한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데 도움을 줌
- 방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이러한 경험을 통해 두 가지의 과제를 파악함
- 1) 잘못된 정보의 위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첨단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AI에게 질문하는 연습을 했음.
- 2) AI를 사용하는 데 적합한 단계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 이러한 사용에서 윤리적 문제가 존재함. 예를 들어 대중 의견의 처리에는 매우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할 수 있음. 아마도 계획 확인 등 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용 필요

● 에스토니아

- 정부 레벨에서 살펴보려 했으며 몇 가지 사례는 계획, 주택, 건설 정책임

- AI는 4G 모델에서 도시의 디지털 트윈 디자인을 실험해 봄
- AI기술을 적용하여 태양광 단지를 매핑했음
- 지형 데이터베이스와 방법론은 건물이나 온실 지붕의 태양광 패널을 탐색하는 것임
- 에스토니아 통계청에서는 현재 국가 통계에 AI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은 없기 때문에 우선 품질 개선이 필요함

- 오스트리아

- 비엔나 시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음
- 현재 인공지능의 장점과 과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시행착오 단계에 있음
- 대표적으로 비엔나 아젠다 2025가 있음
- 여기서 디지털화는 그 자체로 최종 목표로는 인식되지 않지만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보임. 이는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함
- 비엔나 행정부는 디지털화에 대한 특정 종류의 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도 포함됨
- 이미 몇 달 동안 실행 중이며 지자체 부서 내에 기본 AI 전문 네트워크를 도입했음

- 독일

- 독일은 AI가 도시 개발 정책 및 계획을 리드하는 유용한 데이터(토지이용, 교통역학, 활동 패턴 등)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독일은 도시 및 영토 개발을 위해 사람 중심 접근 방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 새로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음
- 분산형 지원 및 자금 조달 프로그램 같은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AI를 통합하는 것임

- 영국

- 영국 정부는 AI에 관해 많은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인공 지능 사용의 윤리적 차원과 이를 투명하고 책임있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왔음
- 이런 이유로 이 분야에는 기준과 정책이 등장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AI분야의 회사가 3,000개가 넘음
- 경제적 원동력으로서 도시계획 영역에서의 AI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흥미로움
- 대중의 상담응답을 분석하는 방법과 텍스트 내용을 광범위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했

으며 이는 매우 분명하고 강력한 적용임

- 또 한 가지 사례는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데이터 표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법안을 의무화했음
- 아직 데이터 표준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 도시 관리나 스마트 특별 계획의 출발점은 데이터의 품질과 데이터의 일관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임
- 우리는 일관되게 모든 공간 데이터에 좋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President

- 메타버스의 적용은 현재 사용되는 기술의 사례 중 하나임. 그리고 3D모델 및 도시 이동 어플리케이션, 기술 기반의 시민단체와 같은 가치있는 사례들이 있음
-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시 전체에서 생성된 디지털 트윈임
- ChatGPT같은 신기술은 새로운 세대에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

(5) [Item 5] Towards net-zero cities and regions (14:30-16:00)

(5-1) [Item 5.a] Deploying and upscaling a Territorial Approach to Climate Action and Resilience (TACAR)

- 일본 발표

- 보고서는 대부분의 OECD 도시와 지역이 아직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강조함
- OECD의 큰 지역 중에 14%만이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위한 성과를 달성했음
- 장소 기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화된 솔루션이 필요함
-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딴 지역에서는 50% 이상이지만 대도시 지역에서는 20% 미만임
- 전 세계적인 1인당 배출량은 넓은 자연지역에 비해 외딴 지역이 3배 이상 더 높음
- 마지막 메시지는 영토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때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임

- 일본

- 일본의 보고서 내용이 G7의 메시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환영함

- 이 보고서는 범외 변화에 대처하고 도시의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음
- 그리고 섭씨 1.5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보고서로 평가됨
- 오전 세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현재 변화에 맞서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며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 관점에서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민간부문의 ESG투자의 개념을 고려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프로젝트의 높은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구현하고 녹색적이고 아늑한 도시를 구현하는 평가 및 인증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이스라엘

- 네이처 포지티브 시티의 제안을 다루려 하지만, 먼저 지역 기후 행동을 지원하는 몇 가지 최신 개발 사항을 공유하고 싶음
- 첫 번째는 기후 위험 지도임. 환경보호부는 이스라엘의 기후 취약성을 지도화하는 계획을 주도하고 있음
- 목표는 지방당국과 중앙 정부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 위험 및 인구 취약성에 대한 세분화된 특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임
- 여기에는 현재 기후 위험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도에는 미래 시나리오도 제시될 것임
- 두 번째 계획은 그린 웹 포털임. 이스라엘의 오픈 스페이스 및 천연 자원에 대한 지도와 기타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집계를 대중에게 공개한 웹사이트임
- 이스라엘은 이미 지구 평균보다 기온 상승률이 더 높은 더운 나라임
- 매뉴얼에는 그늘, 식생, 녹지군 등과 관련된 계획 원칙이 포함됨
- 또한 계획된 작업 흐름 준비에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

- 프랑스

- 이미 선택된 지표에서 지역적 접근을 하고 있음
- 지역 레벨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다른 지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지역조직과의 협력, 로컬 측면에서의 커뮤니티 사업, 종 다양성 측면 등을 어떻게 지역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 필요

- 미국

- 미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보여줌
-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개인에게 제공하는 정책의 직접적인 혜택을 보여줘야 함
- 물론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만들어 내는 것의 이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명백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은 확률이 낮은 사건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 따라서 미국에서 이를 수행할 때 훨씬 더 측정 가능한 개인별 직접 이익 비용 분석에 의존함
- 최근 미국 HUD는 농무부와 함께 자금을 지원하는 새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음. 이는 최신 에너지 효율 모델의 건축 규정을 기반으로 함
-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새로운 건설은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 그러나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구 에너지 지출에 대한 비용 절감의 현재 가치가 건물에 새로운 효율성을 구축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점은 무엇인지 밝혀야 지역 수준에서 채택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터키

- 터키의 최신 계획을 공유하고 싶음
- 2019년 기후변화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3개 프로젝트가 있음
-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적은 터키의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적응 활동을 강화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것임
- 선정된 지역에 대한 지역 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실행 계획이 마련되었음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함
- 불과 몇 년 전에 통과된 오스트리아 공간계획컨셉2030은 기후변화 대응을 모든 공간 개발의 핵심으로 삼았음
- 걷기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이미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지역 수준에서 기후변화 관련 목

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됨

- 비엔나 시의 스마트 시티 전략 내에서 자체적인 기후변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한국

- 도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책임지고 있음. 따라서 도시에서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음

- 한국은 또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6%로 설정했음

- 이를 위해 산업, 건물, 교통 등 전 부문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최초로 탄소 중립 국가와 녹색성장 기반 계획을 수립했음

-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화율은 2023년 기준 80% 이상으로 세계평균인 57%보다 높음

- 이는 인구, 산업, 활동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냄

- 이에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운영, 개발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지난해부터 각 도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중장기 사업장 계획을 포함해야 함

- 2년 전, 우리는 도시계획과 활성화를 위한 탄소 발자국 지도를 개발했음

- 지도는 도시 내 탄소배출의 출처와 수준을 시각화했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도시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 운영을 합리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5-2) [Item 5.b] Global Monitoring of Policies to Decarbonise Buildings: A Multi-Level Approach

- 네덜란드

- 현재 네덜란드 주택은 거의 전적으로 천연가스만으로 난방을 하고 있으며, 유럽의 글로벌 목표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후 유용성을 달성해야 함

- 그러나 800만 채가 넘는 주택과 100만 채가 넘는 비주거용 건물이 있으며, 건설 및 개조 부문의 근로자 부족은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음

- 우리는 집집마다 천연가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개발했음

-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네덜란드의 많은 지역이 건물의 파괴 연령 측면에서 동질적이라

는 것임

- 거리 전체에서 천연가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속 가능한 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쉬움
- 그래서 5년 전부터 전국 66개 동네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음
- 약 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국가 지원 계획으로, 지역 열전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구현의 기회와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지식과 매뉴얼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

- 미국에서 막 시작되고 있는 다단계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음
-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일부는 온실가스 감소 기금임
- 미국환경보호국이 관리하는 27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임
- 개조 및 신축, 에너지의 효율적인 난방, 냉방 장비, 분산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 및 저장 프로젝트를 포함함
- 건물 탈탄소화에 중점을 두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위해 비영리 단체, 주정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할 것임
- 이는 다시 국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진정한 다단계 노력임
- 아직 모든 것이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온실가스 감축기금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설계는 광범위한 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 국립 청정 투자 기금(National Clean Investment Fund)은 민간 자본 제공자와 협력하여 소수의 주요 국가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여 수만 건의 청정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제공하고 혜택의 최소 40%는 저소득층에 전달될 것임
- 이들은 지역 사회 대출 기관과 연결되어 저소득 및 취약 지역의 오염 감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모든 자금을 저소득 및 취약 지역의 탈탄소화 자금으로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임

● 한국

- 탈탄소 정책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공유하고 싶음
- 최근 우리가 탄소 자연 구축 정책에 관한 글로벌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사업 표준 강화와 분류 체계 운영을 추진해 왔음
-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활용

-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새로운 건물에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총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가 넘는 건물은 10~15%의 에너지 세트 의존도를 달성해야 함
- 그리고 해당 비율 이상의 에너지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은 일반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음
- 그리고 건물의 경우 공공구조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는 또한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대출 이자를 보장함
- 또한, 우리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의 에너지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6) [Item 6] Expanding access to opportunities for all in cities

(16:30-17:15)

● President

- 신임 의장이자 시장인 Matos Valo 소개
- 계획에 관한 우선순위 소개를 요청함

● Matos Valo 연설

- 코로나 위기에 대한 도시의 즉각적인 개입이나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사람들의 상황을 완화하는 최근 경험은 직접적인 시민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도시의 중요한 역할임이 입증되었음
- 장기적 기후 변화의 영향, 인구통계학적 발전, 생활비 상승 또는 지속 가능한 교통 상황은 지역 정책 및 개발 전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우리의 책임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줄이고 더 나은 교육, 저렴한 주택, 접근 가능한 대중 교통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 프로필의 얼굴들은 그것이 모든 곳의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과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것이 제가 의장직을 맡아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두고 전 세계 시장들과 전쟁을 벌이고 싶었던 이유임
- 저는 개방적이고 해결 지향적인 대화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책임 있는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함
- 저는 시장들이 여기 OECD에서 개발된 경험과 데이터로부터 혜택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글로벌 미션인 Better Policies를 지원하기를 바람

- 나는 중앙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를 바랍
- 글로벌 요구에 지역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믿음

- 일본 발표

- 이제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원하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2024년 3월에 발표된 도시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라는 제목의 OECD 지역 개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함
- 해당 논문의 예비 버전은 2023년 7월 일본 G7 의장직을 위해 준비되었음
- 이 프로젝트의 경우, 모든 연령층을 위한 도시 만들기 연구의 목적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직면하여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의 주민이 포용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 정책을 식별하는 것임
-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디자인과 공간 계획을 사용하는 연구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음
- 지금까지 달성한 이정표에는 전 세계 도시 전문가의 16개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의 추세와 모범 사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 지금까지 우리는 전문가 간 토론을 진행하고 데스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1월에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음
- 최근에는 지난 3월에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음. 이 워크숍에서는 도시가 모든 연령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인 도시 공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몇몇 국가 대표단, 지방 정부 및 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음
- 워크숍 참가자들은 또한 오늘 세션에 앞서 작업반에 제공된 세션 노트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
-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는 최종 보고서 초안 작성, 올 여름 최종 전문가 회의, 가을에 승인을 위해 보고서 최종 초안을 작업반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올해 가을에 보고서 출시가 포함됨
- 올해 초 G7 국가 도시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해 발표된 OECD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핵심 데이터가 공개되었음
-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에서 65세 이상 성인의 비율은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어린이 및 근로 연령 거주자의 비율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증가했음
- 이는 G7 국가의 도시가 평균적으로 늙어가고 있음을 의미함

- 도시가 비도시 지역보다 더 빠르게 노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음
- 도시 규모를 보면, 인구 50만 명 미만의 소규모 도시가 대도시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름

- 영국

- 저는 최근에야 동료들과 주택 정책 문제를 논의할 때 인구 노령화의 글로벌 패턴에 대한 연구를 활용했었음
- 아시다시피 차별 문제, 즉 사람을 위한 설계 문제는 영국 법률의 핵심임. 우리는 정책 결정 시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정책을 갖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개발된 모든 정책은 다음과 같음. 동등성 측면에서 테스트되었음
-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방식을 통해 작성되었으면 좋겠음
-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국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주택 소유자 직업 수준이 매우 높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야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완전한 수준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 체제도 다를 수 있음
-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는 더 필요한지 여부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정말로 관심이 있음
- 해당 조항이 적절한 장소에 고품질이고 적절한 수량을 제공하는 경우 어떻게 그러한 종류의 주택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족 주택을 보다 일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책적 질문임
- 다른 국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우려와 기회를 반영하는지 궁금함

- 미국

- 우리는 칵테일 파티에서 노인들을 위한 주택에 관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임
- 우리는 미국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경험을 했음
- 한편, 형평성을 위한 형평성 정책에 관해 미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포괄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결정에 형평성 렌즈를 도입했음
- 이는 반드시 도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책에 해당됨
- 정부 내 90개 연방 기관이 형평성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음
- 이는 소외된 지역사회가 직면한 장벽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최초의 로드맵임

- 제 사무실의 한 가지 예는 규제가 저소득 개인이나 지역 사회에 공평한 방식으로 고소득 개인이나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형평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임
- 입법 측면에서 미국은 또한 지난 몇 년간 통과시킨 주요 지출 계획인 미국 구조 계획 (American Rescue Plan), 초당적 기반 시설법, 칩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있었음
- 이러한 각 입법 조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더딘 경제 성장이나 경제 쇠퇴를 경험한 도시와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자원을 보내는 반면, 이러한 법안에서 제공되는 자금의 대부분은 여전히 분배되고 있음

● 독일

-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2035년에는 인구의 27.6%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헌법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다른 나라들이 알게 되면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임. 그래서 전국에 걸쳐 평등한 생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헌법의 목표임
- 물론 이 목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도전받고 있음. 왜냐하면 고령화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어 발생하기 때문임. 특히 독일 동부가 대표적임
- 이전 동독 영토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조사하는 지속적인 공간 조사를 통해 이를 모니터링함. 그리고 이 정보는 웹사이트에서도 이용 가능하고 ATLAS에 게시되며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고려함
- 제가 제시한 권장 사항도 공유하고 싶음
- 하나는 고령화 인구나 젊은 세대의 경우, 대상 그룹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것은 도시 정책과 청년 및 노인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장애물은 디지털 참여 톨 및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것임
- 다른 하나는 사람, 주민, 시민의 사회적, 공간적 환경을 존중하는 것임. 특히 노인들은 예를 들어 장벽이 없는 주택과 사회 서비스를 갖춘 포용적인 지역 동네를 찾는다면 친숙한 사회 환경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독일의 일부 도시는 연령에 적합한 포괄적인 지역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개발한 다음, 마지막으로 건물과 도시 개발을 결합한 접근 방식을 개발했음
- 따라서 이는 단지 무장애 주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건물 주변의 무장애 공공 공간에 관한 것이기도 함

-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우리의 오랜 역사, 소위 사회 도시 개발 지원 프로그램이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프로그램에는 사회적 결속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
-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과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잠재적으로 인구통계적으로 더 차별화된 고려 사항을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 이스라엘

- 이스라엘에는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계획을 다루는 몇 가지 계획이 있음
- 건설주택부는 약 1년 전 노후설계 지침을 내놨음. 동시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하며 활기찬 도시를 만드는 것을 다루는 Urban 95라는 계획이 있음
-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초점을 맞춤. 95센티미터 높이에서 도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에서 Over 95라고도 불림
- 따라서 보고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메모를 통해 슈퍼 블록 및 기타 커피 동네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감사하게 생각함
-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게 조정된 유사한 모델을 이스라엘에서 개발 중임. 반드시 연령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음
-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 탐구하고 싶은 흥미로운 관점임
- 두 번째는 공간을 통한 방향에 관한 것임. 이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임. 과학이나 간판은 중요하지만 읽기 쉬운 도시 공간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함
- 자연스러운 방향, 랜드마크, 거리 계층 구조 등. 이러한 것들은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먼저,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 재생은 도전 과제임.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도시의 역동성이 항상 변하고 상황이 항상 변할 때 공간을 통해 방향을 잡는 능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침

(7) [Item 7] Wrap-up (17:15-17:30)

제50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1. 회의명

- 제50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 (Day 1)

2. 일시 및 장소

- 2024년 5월 15일(수), 9:30 ~ 18:00
- OECD Headquarters CC12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송혜연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담당관 차시현 주무관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최은지 부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정민기 부연구위원

4. 주요 주제

-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량된 장소기반 정책
- 2025년 RDPC 위원회의 준비
- 장소기반 정책을 위한 AI 강화
- 도시와 지역에서의 체계적 기후 탄력성

5. 주요 논의내용

(1) [Item 1] Opening session (09:30-09:45)

- President
 - 다시 한 번 여러분과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쁨
 - 가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친절하게도 직전 의장직을 다시 맡아

- 회의를 취재할 수 있었던 이탈리아의 Flavia Tariglet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음
- 하지만 오늘 하이브리드 형식 회의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되어 기쁨. 보시다시피 출석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우리는 47명의 대표단이 있는 방에 4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음
 -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집트, 페루, 루마니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파트너 조직, EU 지역 위원회 및 유럽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준회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모로코를 포함한 여러 비회원 국가 및 지역에 감사함
 - 저는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회의가 녹화되고 있음을 대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음
 -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며 정말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음
 -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포착하고 이를 특히 업무 및 예산 프로그램은 물론 다가오는 ministerial 준비에 반영할 수 있기를 원함.
 - 그럼 앞으로 의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여기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다룰 매우 완전하고 풍부한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대표단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많은 미래 지향적인 항목이 있다고 생각함
 - 여기에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소 기반 정책과 같은 것들이 포함됨
 - 장소 기반 정책에 AI를 활용하는 것이 현대 논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음
 - 이러한 참여를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물론 이것이 우리 경제의 실존적 위기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후 탄력성을 살펴보고 있음
 - 오늘 이 정말 풍부한 작업에 대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참여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음
 -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의 두 가지 주요 의제는 국가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장소 기반 정책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시리즈 준비 및 회의에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것임
 - 우리는 또한 그룹 논의를 통한 브레인스토밍과 함께 대화형 세션을 가질 예정임
 - 우리는 그러한 토론과 유형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음
 - 이번에는 AI 기반 정책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
 - 도시와 지역의 체계적인 기후 탄력성에 관한 중요한 항목도 있을 것임
 - 그리고 모두의 상황 인식을 위해 내일부터 11시까지 비공개 세션으로 시작하여 인구통계학적 변화, 농촌 웰빙, 지역 개발 전략 구현, 마지막으로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음
 - 대의원들에게 안전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싶음

- 이의나 우려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된 날의 안건을 고려하겠음
- 둘째, 지난 회의 요약기록의 승인에 관한 것임. 이의가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면 요약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겠음
- Deputy Secretary General
 -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과 3일에 열린 OR 각료회의 결과와 이것이 우리 VPC의 새로운 안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시 보고하고 싶었음
 - MCM미팅은 OECD 국가 및 회원국 파트너 국가의 재무부, 경제통상부, 기타 고위급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OECD 최고 수준의 포럼임. 그리고 우리는 국제기구의 대표자들도 보았음
 - 그러나 올해 MCM 국가대표부는 일본이 의장을 맡고 멕시코와 네덜란드가 부의장을 맡아 변화의 흐름의 창조라는 주제로 회의를 가졌음
 - 첫째, 글로벌 봉사 활동에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환경을 배경으로 글로벌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장관들은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의 가입 과정을 위한 도로 표시 채택을 환영했음
 -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페루, 루마니아 등 다양한 수입 국가를 대상으로 7개의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KISHI 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태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함. 태국은 현재 조직 가입을 모색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경제국임
 - MCM에서 일본 총리가 주최한 특별 세션에서 10주년을 맞이한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임
 - 또한 OECD 글로벌 관계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 인도 태평양을 위한 OECD 전략 프레임워크의 이행 계획, G7, G20, APEC, ASEAN 및 UN과 같은 국제 프로세스에 대한 OECD의 지원 참여를 환영했음
 - 인프라 버닝 (Infrastructure Burning)은 OECD 프로그램에 대한 UN Habitats 및 UNESA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국가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내일의 도시 자금 조달에 관한 작년 보고서와 연합 수준에서 기후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공함
 - 또한 RDPC는 이미 135개국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 정부 재정 및 투자 세계 관측소를 통해 국제 데이터 대학을 크게 확장하고 있음

- CFE국장 라미아

- 4가지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오늘 후반부에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몇 마디 말씀 드리겠음
- 컨버전스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매우 빠르게 요약해야 한다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제대로 기능하는 글로벌 시장 및 파트너 국가 및 국제 기관과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사무총장 중 한 명인 이코 모랄레스 대사가 언급한 점임. 그들은 데이터 문제를 주장했음. 그들은 또한 글로벌 참여 문제와 여러 위원회 간의 시너지 문제도 주장했음.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겠음
-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RDPC 장관급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RDPC는 지난 5년 동안 장관급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장관급 회의를 열 시간이 되었음. 마지막은 2019년이었음
- 그래서 저는 OECD 이사회가 5월 25일 브라질 지역에 대한 지역 정책 강화라는 광범위한 팀 소속으로 이번 장관급 회의의 조직을 공식 승인하고 폴란드 지정을 공식 승인했음을 보고하게 되어 기쁨. 의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우리는 오늘 그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매우 흥미로운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제안해 주신 폴란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는 내년에 바르수에서 이번 장관회의를 갖기를 희망함

(2) [Item 2] Advancing place-based policies to boost national competitiveness

(09:45-11:15)

- 발표자: An unfolding recovery

- 그럼 최근 개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음
- 광범위하게 우리가 경험해 온 엄청난 통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UNEMP 고용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글로벌 활동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브라질과 비슷한 것으로 입증되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에 따르면 경제 전망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 시점에서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2023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다소 나은 것으로 판명되었음

- 이 차트는 2022년 11월 레드라인 이후 연속적인 경제 전망에서 글로벌 GDP의 연속적인 경로를 보여줌
- 1년 반 전에 예상했던 대로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4분기 말 기준으로 약 2.3% 성장했을 것임
-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결과는 약 3.3%임. 3.3은 평균적으로 보면 좋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수치임. 반면에 우리가 2024년 내에 성장을 위해 동일한 활동을 수행했다면 현재 우리의 그림은 실제로 1년 전과 상당히 유사함
- 따라서 여기에서 미래가 눈에 띄게 더 밝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쁜 결과를 피했으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2023년에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였음
- 그리고 널리 예상된 바와 같이 작년엔 미국 경제는 급격히 둔화되기는커녕 꽤 강하게 성장했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의 핵심 요소는 왼쪽에 있는 대규모 재정 완화였음
- 여기에서 기본 정부 기초 수지의 변화가 미국과 기타 주요 OECD 경제에서 훨씬 더 크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초과 저축이 감소하고 다른 곳보다 미국에서 더 큰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임
-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음
- 현재 눈에 띄고 환영받는 특징 중 하나는 실업률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역사적 기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것임
- 여기서 파란색 선은 OECD 전체 평균이며 금세기 동안 과거 순환 최저치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녹색 점선은 OECD 국가 중 25번째 백분위수와 75번째 백분위수를 나타냄
- 그리고 이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약간의 회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낮은 실업률 현상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시켜 줌
- 실업률은 매우 낮지만,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더욱 균형을 이루고 초과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
- 그리고 많은 OECD 국가에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 것 중 하나는 이민임. 이민은 코로나 기간 동안 중단된 후 많은 경우에 급증했음. 여기 왼쪽에 표시된 것처럼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2023년 전체 노동력 성장에 대한 외국 태생 개인의 기여를 보여줌. 포르투갈에서는 1%포인트를 넘었고, 캐나다와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많은 유입이 있었음
- 한편, 오른쪽에는 여러 주요 경제권에서 설문조사 지표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을 보고하는 기업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곳은 그린라인의 일본으로,

노동력 부족이 계속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이 이민이 급증하지 않은 한 가지 사례라는 점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 우리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충격을 겪었지만 여기 왼쪽에 표시된 것처럼 2023년 인플레이션은 급격히 하락했고 두 가지 모두 상승했음
- 이것이 파란색 선이고 신흥 경제국은 빨간색 선임. 선진국의 핵심 인플레이션(녹색 선)도 하락했음
- 오른쪽을 보면 2020년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적용한 47개 국가 중 약 4분의 3이 인플레이션 목표 이하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지만, 2022년 말에는 하락세를 보인 것을 볼 수 있음. 단 하나의 경제만 매우 낮음. 거의 모든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높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반전되고 있음
-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의 약 1/3이 올해 3월 현재 목표에 도달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제 올해와 내년 전망을 살펴보면, 이 표는 전 세계, OECD 전체, G20 전체, 개별 G20 경제에 대한 전망을 보여줌
- 거기에 있는 삼각형, 화살표는 0.3 이상의 상향 개정이 있으면 녹색이 되고, 0.3 이상의 하향 개정이 있으면 삼각형이 되고, 변경 사항이 그보다 작으면 주황색 막대임
-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작년, 올해, 내년 사이에 실제로 성장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예상 성장률은 전 세계 GDP의 경우 3%가 조금 넘고 OECD의 경우 2% 미만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과 비슷하지만 이전 기간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CFE부국장 나딤 아마드 발표

- 아마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것일 수도 있음. 하지만 제 생각에는 Jeff가 언급한 더 광범위한 문제 중 일부를 다시 살펴보겠음
- 일부 배경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장소 기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추진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것임. 이에 대한 성찰의 일환으로 위원회 및 많은 은행과 함께 우리는 장소 기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선도자, 전문가, 학계가 참여하는 6개의 세미나를 조직하고자 함. 장소 기반 정책의 작업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그 내용은 모두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보고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지는 않겠음
- 그 중 일부에 대해 몇 마디 말하지만, 예를 들어 보고서를 읽고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하면 엄청나게 많은 반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 아마도 나는 이러한 핵심 질문들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물론 제 생각에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항상 우리가 여러 장소에서 볼 수 있는

- 공간적 불평등을 다루는 것이었음. 그리고 그것은 지난 25년 동안 50번의 다양한 모임을 통해 이 공동체가 일한 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함. 물론 우리가 보는 차트의 합계는 이제 이러한 과제 중 일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측면에서 표준적인 차트임
- 지난 지역 전망에서 우리가 소득 불평등의 차이에 대해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 불평등이 어떤 곳에서는 증가하고, 다른 곳에서는 안정화되고, 소수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본 것에 대해 크게 언급한 내용이 있었음
 - 하지만 우리는 여기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적 불평등과 소득, 물론 생산성에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지속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음. 그리고 아마도 소득의 가장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인 생산성 사이의 연관성은 보고서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함
 -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곳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함.
 -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장소 기반 정책에 대해 갖고 있던 성찰의 큰 틀을 이루는 부분이었을 것임. 물론 소득 차이에 관한 고전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음
 -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관찰하면서 수행한 모든 작업에서 나타나는 비대칭 패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외딴 지역과 시골 지역에 있지만 OECD 내에서 축소에 직면한 지역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물론 축소는 지하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다양한 장소 기반 정책을 가져옴. 물론 일부 지하철이 축소되는 경우라도 그러함.
 - 그래서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물론 우리가 장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질성을 보고 있다는 것임. 이질성 자체는 공간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장소에 따른 차이의 이질성과 공간적 논의의 목표 유형에 대해 생각해야 함
 - 또 다른 하나는 지난 5, 10년 동안 대화를 주도한 가장 큰 요인은 공간적 비대칭성이었음. 그리고 저는 열 강도의 차이는 물론 녹색 전환의 최전선에 있는 일자리 비율의 차이 등 환자 증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했음. 그 점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음
 - 그리고 다른 위원회 중 하나인 연맹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보면 녹색 전환의 위험에 처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녹색 전환의 혜택을 받는 일자리도 살펴보는 작업이 있었음
 -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공간적 차이를 볼 수 있으며 물론 이는 디지털화, AI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음
 - 그러나 그 반성의 일환으로 우리는 장소 기반 정책이 무엇인지, 장소 기반 정책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중앙 정책과 장소 기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조금 생각하려고 노력함.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아마도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일 것임

- 우리는 정의를 면밀히 정리했으며 이에 대한 귀하의 피드백을 환영함

● 스위스

- 저는 이 방에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는 이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훌륭한 알리를 제공함. 아울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었음
- 우리는 강력한 다단계 정부를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EU가 그린딜을 통해, 미국이 제한법 및 감염감소법을 통해 했던 것처럼 그러한 정책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함
-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고서를 읽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산업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음
- 산업 정책에 관한 이 토론은 현재 우리 수준에서 매우 중요함

● 영국

- 제 전임자로부터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영국의 12개 핵심 임무에 걸쳐 핵심 장소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러한 임무가 기본을 다루는 방법이며 지역 및 국가의 역량을 제한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영국의 각 지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미션이 있음
- 글로벌 동향과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백서 외에도 추가 세금 기반 정책이 있었음
- 여기에는 특히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및 국내 투자를 모두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투자 센터를 만들고 구현하는 것이 포함됨
- 또한 초기 대규모 선거 이후 민사 당국이 창설되고 맨체스터의 트레일 기반 딜러와 국가 차원의 WES 조정을 통해 영국 전역에서 연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었음
-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에는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에 민감한 Green Book이 있으며, 이 평가 방법론이 현재 사용되고 있음
- 간단히 말해서 정책을 설계할 때마다 비용과 이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임
- 이 근본적인 변화는 사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계없이 희망적으로 보장될 것임.

● 독일

- 저는 독일 지역 및 산업 정책 입안의 최근 발전 상황 중 일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음
- 따라서 독일의 장소 기반 정책은 두 가지 주요 기둥에 기초함
- 하나는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국가적 구성요소 또는 공동과제임
- 다른 하나는 유럽의 결속 정책임
- 둘 다 연방 주에서 시행
- 우리는 2년 전에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는 주요 추세 중 일부를 거의 반영하고 있음
- 또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단일 목표 설정에서 지방 전환을 포함하여 보다 프로토타입 목표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언급했었음
-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경쟁력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함
- 독일은 다음 자금 조달 기간과 새로운 자금 조달 기간에도 이러한 초점을 강화하기를 열망하고 있음
- 두 번째로, 산업 정책에 관해서는 국내에 매우 강력한 중소기업 구조가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음
- 그래서 우리는 정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작년 10월 이후의 새로운 산업 정책 전략이라고 말해야 함. 산업 정책이자 소위 사이클링 벤더로 매우 유명해졌거나 경제 안보가 무너진 글로벌 쇼크에 의해 시대가 바뀌기도 했었음. 새로운 우선순위로 추가되었음
- 그리고 주요 초점은 유럽적이며 입지 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을 갖는 것임

● 호주

- 일반적으로 글로벌 차원과 구체적인 권장 사항 사이의 균형을 찾는 작업의 포괄성에도 감사드림. 또한 유럽연합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눈에 띄게 반영된 점에도 감사드림
- 물론 오스트리아의 경우 지정학적 문제, 대규모 청원 문제, 가스 의존, 노동력 부족 문제 등 보다 구체적임
- 저는 이것이 우리의 협력적 연방주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함
- 장소 기반의 사고방식은 제도적 환경과 지역 및 지역 수준의 정책 결정에서 우리 DNA의 일부임
- 동시에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 및 지역 수준의 역량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 적응이 필요함
- 두 번째 요점은 지역 및 지방 수준을 향한 부문 정책의 전환과 지원에서 우리가 관찰한 것임

- 따라서 보다 다양한 행위자 접근 방식을 통해 부문별 접근 방식은 줄어들지만 보다 통합된 접근 방식이 가능해졌음
- 우리는 이를 다양한 유형의 혁신, 연구 또는 산업 정책에서 보고 있음
- 우리는 순환 경제와 같은 녹색 전환 정책에서도 이를 볼 수 있음
- 이는 물론 거버넌스, 다단계 거버넌스,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의 결과임

● 캐나다

- 우리 모두가 이것이 가야할 길이라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와 현장 기반 접근 방식에서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지 몇 가지 영역을 다루려함
- 캐나다는 기술 개발에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향상, 기술 혁신, 기술 및 적응을 포함하여 특히 민간 부문에 대한 자본 투자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올해부터 캐나다의 지역 개발 기관은 농업, 청정 기술, 의료 및 제조와 같은 중요한 부문에서 AI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스타트업과 신기술을 촉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음
- 개발 기관을 통해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사회 기회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여 숙련된 근로자와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장애가 됨
- 주택은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음
- 새로운 연방 예산 내에서 지역 개발 기관은 특히 혁신적인 주택 솔루션 개선을 모색하는 새로운 기금을 관리할 것임
- 모듈식 주택, 대규모 목재 건축, 3D 프린팅 등과 같은 것임
- 그리고 이러한 보다 산업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택 측면에서 일부 지역의 생산성 부족 및 혁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램
- 마지막은 자본에 대한 접근과 포용적 성장 측면임
- 다시 한 번, 우리는 새로운 연방 예산 내에서 새로운 원주민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했음
-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주요 천연자원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원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원주민 기업가들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사업을 개발하여 원하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그리고 이는 다시 지역 개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

● 콜롬비아

- 콜롬비아에서는 국가 수준의 정책을 해당 지역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고, 중앙 정부 간의 대화와 공동 행동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촉진하는 데 진전이 있었음
- 지역 개발 전략은 국가 개발 계획에 통합되어 있으며 지역 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연계를 전문화하며 지역의 생산성, 경쟁력, 혁신의 촉진을 추구함
- 식량 주권과 아동 세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접근하고 사용 가능하며 건강, 보안, 웰빙을 보장하고 식량과 싸우며 콜롬비아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식시키려 함
- 또한, 지역 개발 정책과 영토적 확고한 차원의 구조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확립되었음
- 예를 들어 이러한 산업 정책은 지역 차원의 연결성, 개발, 가치, 국제화에 대한 약속과 다양한 지역에 재산업화 센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고려함
- 대형 센터는 기술 지원, 기술에 대한 접근, 혁신 및 시장 접근과 같은 측면에서 지역 생산성 부서를 지원하여 지역 수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함

● 한국

- 오늘은 경쟁력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 지역개발 정책의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음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수도권에서 도심으로의 이전은 한국의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토면적은 인구의 약 51%, 지역총생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청년인구의 약 70-80%가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어 지역 경쟁력 약화 우려
-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는 전 지역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핵심 디지털 허브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현 정부는 일자리, 식당, 상업에 대한 희망을 통합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또 다른 계획은 기업이 원하는 위치에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는 Enterprise Innovation Park임
- 현 정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스페인

- 우리 작업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고무적인 보고서임
- 그리고 스페인의 낱자 기반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장치의 구현은 영토 수준 간의 조정을 개선하고 영토 제공 및 지역 간 협력을 촉진했음
- 지역 혁신 생태계 촉진을 목표로 하는 공공 정책은 공유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수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했음
- 소매 역량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영토 격차를 완화하려는 영토 기반 임무임
- 도시와 지방정부를 혁신 정치에 더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저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 공공 기반 시설의 재배치, 서비스 및 기반 시설 제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싶음
- 마지막으로 조정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43개의 종파 회의가 있음
- 옹호, 의사결정 및 조정 기능을 통해 주정부와 노조 행정부 간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

- 미국

- 우리는 수년 동안 장소 기반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왔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실제로 역사적인 수준의 보다 표적화된 개입을 향한 장소 기반 이니셔티브 측면에서, 연방 수준에 대한 전체 정부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았음
- 미국의 미국 구조 계획 (US American Rescue Plan)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최근 몇 년간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인력 기술을 강화하고, 산업 및 혁신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반 산업 정책에 약 800억 달러를 투입했음
- 그리고 아마도 더욱 중요한 점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 사회와 인구를 포함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대한 강조를 강화했다는 것임
- 우리의 최근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주요 장소 기반 개발 테마를 권장했음
- 다른 것들은 적절한 계획과 역량 강화,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 및 포용성임
- 예를 들어, 경제 개발청의 계획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개발 조직, 원주민 공동체, 주나 도시에 필수적인 투자 지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을 포괄함. 왜냐하면 효과적인 계획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 구성 요소이기 때문임
- 우리는 또한 전국의 특정 장소에 대한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을 목표로 삼았음
- 예를 들어, 의회는 빈곤 지역 사회와 도시 내 극빈곤 지역, 석탄 지역 사회, 원주민 지역

사회에 대한 저항과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광대역 확장에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요구했음

- 이제 모든 수준의 정부 및 지역에 걸쳐 이해관계자와의 전략 및 협력을 장려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최근 지역 경쟁력과 정책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매우 상당한 수준의 자금이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연합에 전달되었음
- 예를 들어, 당사의 TECHVS 프로그램은 미래의 기술 및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과 자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리고 그러한 산업과 기업, 그리고 그들이 창출하는 좋은 일자리가 성장하고 미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최근 우리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전국의 31곳을 지정했음

● 핀란드

- 지역 경쟁력 강화는 1990년대 이후 지역 개발의 핵심 요소였으며 이 작업은 지역에 사용되는 지역 및 국가 생태계 개발의 형태로 여전히 진행 중임. 이에 대한 매우 통찰력 있고 유용한 보고서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는 국경이 가까운 곳의 우울증 결과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는 동부와 북부 지역, 특히 서부 사람들도 인구 통계에 직면해 있는 동부와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결정했음. 경제적 어려움과 국경 지역의 미래 전망은 현재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이 정부 출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장소 기반 접근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은 매우 다단계적임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제 성장, 지역 활력, 투자 가속화, 역량 개발 및 노동 가용성의 관점에서 핀란드 북부와 동부가 제공하는 기회의 완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것임
- 또한, 변화하는 안보 정책 상황에서 공급의 보장과 자급자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임
- 그러나 지역적 또는 세계적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어려울 수 있음
- 현재 국가 산업정책 전략을 수립 중이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 전략 자체는 지역적이지는 않지만 지역적 차원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임
- 또한 자신만의 지역 산업 전략을 준비하도록 권장됨
- 우리 부처는 지역 대표와 산업 정책에 관한 일련의 지역 개발 논의를 막 마쳤으며,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역과 부문 대표 간의 정기적인 상호 작용 형성 및 실행에 필수

적이며 유익하다고 말하고 싶음

● 이스라엘

- 저는 최근 이스라엘의 몇 가지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싶음
-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웰빙을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 계획에 점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활동 영역임
- 처음에는 몇 가지 지역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 국가공간전략계획에서는 지역계획을 국가의 장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주제로 규정하였음
- 각 지역의 고유한 측면을 파악하고, 지역적 이점을 활용하고, 지역 기반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강조되고 있음
- 일상적인 기능과 주민의 일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을 고안했고 그 과정을 통해 28개 기능 영역이 탄생했음
- 그러나 이는 미래의 지역 계획이 지역 자산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출발점임
- 또한 10월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재생 및 개발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실제로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음
- 첫 번째는 국경에서 7km 이내의 지역에 초점을 맞춤. 이 계획은 빠른 대응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신속하게 개발되었음. 여기에는 많은 프로젝트가 포함됨
- 예산의 일부가 지역사회와 마을에 직접 할당되어 자체적인 재활 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측면을 한 가지만 언급하겠음
-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지역 전략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 발전은 보안 측면을 넘어서는 기능적 공간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훨씬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함

● 일본

- 일본정부는 정보기술화, 세계화 등 급변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CCIED 분야에 예산 및 조세 지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
- 특히, 도시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계획을 지원함
- 또한, 일본 정부는 중심도시의 국제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심도시의 성장과 분배 사이의 유연한 측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지역 스타트업 및 시범단과의 교류, 산학관 협력을 통해 중심도시의 혁신을 글로벌 헬스로 보완하는 동시에 지방도시의 혁신을 글로벌 헬스로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의 해외 인력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디지털 자원임
- 또한 이번에는 새로운 국가 공간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 전략의 기본 개념 중 하나는 국제 경쟁력 강화이기도 함

- 노르웨이

- 저는 이것이 노르웨이에 있는 우리에게 매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스위스의 혁신을 되새길 것임
-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정책 참여에 있어 경쟁력에 대한 초점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음
- 주요 개발에서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매력과 복지를 촉진하고 농촌 지역, 특히 노르웨이 북부의 노동력 부족을 목표로 삼아 추진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음
- 정부는 그린시프트(Green Shift)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개발 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사업정책을 추진하겠음
- 또한 그들은 예를 들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략과 관련하여 국가의 여러 지역에서 보다 목표화되고 조정된 공공 노력을 위한 도구로 카운티와 지역 성장 협정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시작했음
-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함. 특히 장소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한 사회 부문 정책에 대해 논의할 때 더욱 그러함
- 우리는 공공 정책에서 개념 접근 방식을 강력히 장려하고 싶고 이는 우리의 의제에서 매우 중요하며 요즘에는 강화에 대한 권장 사항을 논의하고 있음
- 폴란드에서는 실제로 국가 및 지역적 다양성의 지역 정책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정책에는 중요하지 않음. 현재는 과거보다 영토 지향이 더 많다고 생각함
- 그래서 공언하는 문제는 진화하고 있으며 장소 기반 접근 방식도 다름. 저는 우리가 서로 다른 다양한 측면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문제는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임
-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고, 요즘에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논의함
-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이자 과제는 이 개념을 부문별 정책으로 확장하는 것임
- 이는 또한 동부 및 중형 도시와 같은 지역 및 제3 부문 모두에서 영토 접근 방식으로 정책을 구현하는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음

- 전략적 목표와 지역 수준의 불평등 측면에서 중요한 다양한 영역이 있으며, 우리는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음
- 우리는 장소 정책의 이점을 더 잘 알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과제는 그러한 정책 구현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임
- 우리는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자산의 상한선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함.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가용성, 특히 가장 낮은 수준의 다양한 관리 수준에서 시작하여 프로그램을 지연시키지 않고 이 상황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국가, 지역, 로컬 수준 간의 협력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상향식 접근 방식도 매우 중요함
- 우리는 지역 차원의 역량이 없으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
-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함
-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속 정책의 시행은 우리가 영토 도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여 매우 유용하고 도움이 되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도구 덕분에 기능 영역도 지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 그리고 우리는 일부 공공 서비스의 임시 제공과 관련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맥락에서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발 정책을 수행한다고 믿음

● 체코

- 체코에서는 공공 투자의 주요 원천으로서 경쟁력에 대한 초점이 다양한 집중 요구와 기타 등등을 존중하고 기여하기 때문에 다소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 측면에서 진정한 장소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많지 않았음
-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장소기반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간접지원 조치는 소도시,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켜 경쟁력을 지원함
- 향후 편성 시기를 대비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도 장소 기반 접근 방식을 보다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 불행하게도 이것은 국가 경쟁력 전략의 진정한 플레이 기반 차원이 아직까지 없다는 두 번째 질문에서 나온 것이기도 함
-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총리가 의장을 맡은 지역 정책에 관한 정부 위원회라는 새로운 정부 구성원과 영토 파트너의 뿌리 뽑기 조직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이 설립되었음

-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영토 영향 평가, 장소 기반 접근 방식, 기타 등등과 같이 그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과 많은 활동의 영토 차원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주무부처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 당국, 기업가, 조직, 학계, NGO 등의 대표로 구성된 13개의 지역 상설 회의가 있음
- 그들은 일부 투자 배치를 지원하는 것에 관해 결정함

- 터키

- 우리는 이 지역에서 향후 5년 동안 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개발 기관은 새로운 지역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중심지임.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탄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탄불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탄불 주변 도시의 거리로 이전해야 함
-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자연 이주정책은 중요한 국가적 성과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
- 그리고 우리는 이들 도시가 글로벌 건강 도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어 글로벌 가치 사슬 순위를 높이기를 원함

- 불가리아

- 지역별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통합 급여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함
- 이 접근 방식은 지역의 NGO와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제공하므로 소규모 정부를 육성함
- 그들은 제시될 특정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토에 대한 투자를 위해 함께 협력했음
- 그러나 저는 국가 차원에서 개발되고 불가리아의 주제적 목표에 따라 불가리아 각 지역의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종교 단체를 고려하는 스마트 교정을 위한 혁신 전략을 강조하고 싶음

(3) [Item 3] Preparing the next PWB and the 2025 RDPC Ministerial Meeting (11:45-13:00)

- 발표자

- 저는 위원회 초안, 작업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발표한 우선순위 결정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게 되어 기쁨
- 먼저, 이 프로그래머 작업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신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 오늘 현재 우리는 34개 회원국으로부터 피드백과 우선순위를 받았음
- 그래서 오늘 테이블 위에 있는 초안은 긴 여정의 결과물임
-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했음
- 1월 12월 설문조사를 위해 여러분의 예비 의견을 수집했음
- 동시에 우리는 오늘 아침에 언급한 SG 대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받았음. 우리는 2월과 4월에 RDPC 사무국과 두 차례 논의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지정 훈련을 실시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단계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매우 유용한 지침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음
- 이제 내용에 있어서 다섯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음
- 첫째, RDPC의 우선순위는 경쟁력, 기후 행동, 글로벌 시장, 글로벌 참여 및 디지털 정책에 관한 SG의 전략적 방향과 매우 잘 일치함
- 둘째, 우리는 콘텐츠, 특히 40년대 인구 통계, 분해, 디지털 및 탈위험에 대한 위원회 전체의 견해가 크게 수렴되는 것을 관찰했음
- 셋째, 현재 작업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원이 있었음
- 그리고 네 번째 요점은 AI, 주택, 재난 관리, 기업가 정신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초안에서 등장하고 도입된 새로운 항목이나 각도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회장님과 라미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그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관광위원회뿐 아니라 OECD 내 다른 CF 위원회와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따라서 의장 간의 토론에서 얻은 통찰력은 사람과 장소에 대한 교차적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일본

- 우선, 여기 문서의 품질과 프로세스 관리 방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나는 이것이 우리가 제안을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함
- 저는 물론 인구통계학적 전환에 대한 작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아마도 제가 모르는 한 가지 영역일 수도 있는 Green Deal에 맞춰 기후와 환경에 특히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싶음

- 그것이 우리가 요청하는 강화라면 아마도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함
- 이는 유럽의 경쟁력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의제임
- 저는 이것이 다음 커미션의 주요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함
- 우리는 방금 나온 단일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으며 곧 이탈리아 총리의 경쟁력에 대한 보고서를 받게 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저는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싶음. 이는 오늘 아침 첫 번째 세션에서 나눈 논의와 약간 일치함
- 정책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정책이 하나 있는데, 가장 큰 정책 질문은 외부 경쟁력과 내부 결속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그 안에서 장소 기반 정책의 위치가 어디인가임
-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산업정책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대서양 건너편,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이 장소 기반 정책 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가 작업 내용, 특히 경쟁력에 관해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매우 강력하게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지원할 것임
- 나는 이것이 실제로 정책 논의가 증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위원회가 이에 기여할 수 있고 아마도 평가 및 데이터 작업에 대한 매우 강력한 지원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 Urban Working Party

- 어제 처음으로 Working Party Urban 의장으로 참석하게 되어 기쁨
- 저는 Working Party 의장으로서 코멘트 하고 싶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 주거 환경 및 AI와 같은 항목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쁨
- 이는 어제 35차 회의에서 있었던 매우 심도 있는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음
- 그런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언급하고 싶음
- 우리는 모든 연령대의 도시에 대해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음. 이는 분명히 젊은이와 노인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인구 통계와 연결되어 있음
- 우리는 또한 건물의 탈탄소화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의 경제성에 대한 교차 분석도 포함하는 주택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게다가 출시 초기에 언급되었으며 자연, 긍정적인 도시 및 인공 지능의 새로운 작업 흐름을 기반으로 데이터 및 증거 확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활동을 더욱 전개한다는 의미임

- 우리는 이것이 도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그리고 어제 우리가 AI에 관해 상당히 긴 토론을 펼쳤을 때 몇 가지 우려 사항도 있었음
- 개인 정보 보호, 실직 및 기타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었음
-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도시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실험하고 싶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며, 조건부, 즉 다중, 지역 거버넌스 및 금융에 대한 요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함
- 나는 언급된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네덜란드 국민으로서 우리는 수위가 2/3 정도 낮음
-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전 프로그래밍에 비해 많은 국가에서 물을 중간 또는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한 것도 기쁨
- 그리고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위해 수행되는 작업은 이 경우에 매우 관련이 있음

● Territory Indicators Urban Party

- 저는 WPTI가 어떻게 기여하고 이러한 형태의 작업에 기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임
- 그리고 이러한 기여는 지하수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는 데 있으며 우리는 실제로 데이터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석의 세분화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음
- 아주 짧게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빅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 왔으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보고서의 일부를 선택하면 지역 및 도시의 두 장에서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음
- 하나는 생활 수준, 평등한 기회, 디지털 분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및 도시에 관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발생함
- 그래서 당신은 주제가 작업 프로그램과 매우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안심할 수 있음
- 우리가 계속해서 앞을 내다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임. 앞을 내다보면 우리는 이미 다가올 기술 변화의 다음 물결을 보기 시작할 수 있음
- 저는 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데이터 생성 및 지역의 잠재적 개발에 또 다른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제가 AI 기술의 활용을 장려하는 연구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음. 따라서 저는 PPI의 또 다른 기여가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함

- 독일

- 수행된 매우 세부적인 작업과 완전히 파악된 모든 주제에 대해 큰 감사를 표하고 싶음
- 한 가지 간략한 반성으로, 우리는 계층화 작업을 수행했고, 주제를 살펴보고, 이것이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OECD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을 취했음. 가장 잘 사용하고 부가가치가 가장 높음
-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전달 및 계획 기반 정책에 따라 해결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함
- 우리가 높은 것으로 분류한 일부 영역이 이 각도에서 더 취약하다고 생각함
-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지지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싶음
- 우리는 앞으로 이 데이터를 보다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도구의 툴킷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과학 보고서에서 더 많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어 기쁨
- 또한 국가 정책 토론에서 텍스트 어딘가에 있는 보고서를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웹 세미나를 수행할 것임

- 미국

- 다단계 거버넌스 시스템 투자에 관한 우리 그룹 전문가 그룹은 매년 23일에 모임을 가졌으나 회의는 전적으로 상호적이었음
- 이 그룹을 대신하여 나는 다단계 정부의 개방예산 문제와 이를 위한 요점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싶음
- 내부 개발을 위한 다단계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한 정책 입안자의 결과를 반영함
- 강점 중 하나는 연속성임
- 따라서 이러한 우선순위, 현재의 여러 우선순위가 많은 국가에서 의제의 높은 위치에 남아 있음
- 여기에는 지역 개발 전략 및 정책의 전략, 계획, 감독 및 구현을 위한 역량 구축과 지역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품질 향상, 공공 투자, 공급자,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이 포함됨
- 또한 메가 트렌드를 관리하고 지역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단계 거버넌스 및 금융 시스템을 강화함
- 또 다른 강점은 위기 및 재난 위험 관리, 금융, 주택 개발 및 기타 인프라에 대한 AI의 영향과 같이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입안자를 위한 실용적이고 표시 가능한 거버넌스 차원을 갖춘 새로운 영역을 도입했다는 것임
-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이들을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냄

- 예를 들어, 다단계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정부 수준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공공 투자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받아들임
- 그리고 채택 후 10년 동안 가능한 원리를 개발하고 실용적인 토크를 구축하고 있음

(4) [Item 4] Leveraging AI for place-based policy (14:30-15:45)

● 발표자

- 우리는 마지막 위원회임. 그래서 그 이후로 위원회는 제안을 승인했고 우리는 협력하여 준비를 진행해 왔음
- 이번 회의에 앞서 장관회의 실행 및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메모가 준비되었으며 이제 그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제시하겠음
- 다음 주 5월 21일부터 6월 중순까지 지명 모집을 시작할 예정임
- OECD의 모범 사례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지리적 다양성에 비 EU 국가 출신의 부의장을 두고, 성별 균형을 맞추고, 지난 IPC 장관 회의에서 대표단을 순환 배치하도록 권장함
- 이제 장관회의의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겠음
- 1월 취소 제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복력이 있는 사례에 대한 지역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기로 합의하였음
- 이 주제와 충격과 장기적인 변화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글로벌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회의의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제안했음
- 첫째, 지역정책을 경쟁력과 복지를 위한 국가적 무대의 중심에 두는 것임
- 둘째, 성공적이고 공정한 환경, 디지털, 인구통계학적 전환의 초석으로서 물리적 회복력을 촉진함
- 셋째, 효과적인 다단계 거버넌스, 효과적인 공공 투자, 거버넌스 구조 및 제도적 역량을 위한 지역 정책 구현을 지원함
- 따라서 이 세 가지 전략적 목표는 화면에 표시되는 안건 초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모에 나와 있음
- 첫째 날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과 웰빙 세션을 위한 전체회의로 둘째 날을 시작함
- 우리는 업무 우선순위 프로그램과 장소 기반 정책의 잠재력, 그리고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산업적 정책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오늘 아침 일찍부터 논의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음
- 이어서 기후와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살펴보는 지역 도시와 농촌 지역의 글로벌 상호연결

- 전환에 대한 회복력 구축에 관한 세 번의 분할 세션이 이어질 예정임
- 오후에는 지역 정책의 영향을 최적화하고 정부 수준 전반에 걸쳐 정책 구현 및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두 번째 전체 세션이 있을 예정임
- 이 그림을 완성하려면 공식 회의 직전과 직후에도 가능하도록 제안됨
- 따라서 현재 폴란드와 논의 중인 전날 장관급 주제에 대해 현지 및 지역 행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회의 종료 직후 일부 국가 정부의 역할인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행사도 있을 예정임. 장관은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장소 기반 재건 및 국가 복구를 지원하는 방법을 논의함
- 마지막으로, 장관급 문서 및 결과에 대해 주요 이슈 보고서와 세션 노트가 개발될 것이며, 장관급 논의가 향후 위원회의 구체적인 결과 및 지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제안함. 이것은 행동 계획으로 이루어짐
- 실행 계획은 OECD 정부가 각 세션 주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행동 영역을 설명하는 로드맵으로 위원회 수준에서 개발될 것임
- 예를 들어 여기에는 수집 데이터, 새로운 지표와 같은 특정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작업을 탐색하거나 심화하고, 일부 이해관계자와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공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설정하는 등의 제안이 포함될 수 있음.
- 아울러 이번 장관회의 결과를 선언문 초안에 반영해 정보 건전성을 강화할 예정임
-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역 개발에 대한 권장사항의 구현 도구 키트,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위한 지역 준비에 대한 OECD 보고서, 새로운 환경 전환 위원회를 포함하여 부처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도 발표할 것임
- 그리고 장관급은 모니터링, 도시 정책 원칙에 대한 보고서, 농촌 정책 강화에 대한 보고서 등 그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할 일부 보고서를 배포할 기회도 될 것임

● 폴란드

- 우선, 이번 장관급 협의회 구성 제안을 받아들인 OECD 이사회에 감사드리고 싶음
- 우리 정부는 단지 정치적 기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역 정책과 이번 특정 회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 즉, OECD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뿐 아니라 지역 정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임
- 이번 장관급 회의의 주요 초점이 무엇인지 방금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음
- 그러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도는 우리 영토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도전을 반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음

- 우리는 항상 위협이 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음
- 조치가 필요한 개발이 있고, 완화하고, 예방하고, 회복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이를 개발을 위해 활용하려고 노력해야함. 이러한 추세와 관련된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임
- 그리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기반 정책이 지역 정책임
- 동시에 다수의 국가에서는 1월 25일부터 유럽이사회에서 폴란드 의장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며, 연결 고리를 탐색하고 개발 및 구현 중인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더 넓은 관점에서 배우기를 원함
- 그러나 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결속 정책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음
- 설명드린 대로 지역 정책에 관해 좀 더 폭넓은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함
-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는 장관급 회의 전후로 한두 차례의 추가 회의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음
- 그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관련 영토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때 상향식 분산 접근 방식을 매우 지지하기 때문임
-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OECD 커뮤니티로서 우크라이나 친구들에게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역 정책 및 분권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함

● 포르투갈

- 나는 장소와 타이밍에 대해 우리에게 말한 연결이 쉬울 것이고 타이밍과 관련하여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그래서 충돌 장소, 우주 정책, 회의의 주제나 메시지에 관한 산업 정책은 이런 종류의 토론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주제임
- 제 생각에는 이 토론에 매우 중요할 것임
- 첫 번째는 우리가 오전에 논의한 산업 정책의 긴급 상황에서 지역 정책의 역할임
- 그렇다면 외부 경쟁과 내부 화합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이 우리 위원회의 핵심 주제이고 정치적 토론에 관련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내 생각에 정책 입안자들의 과제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 등과 국내 또는 국제 산업 정책의 지역화와 스마트 전문화와 같은 상향식 지역 설치 정책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임

- 상향식과 하향식의 올바른 조합은 무엇입니까?
- 결국 이 정책의 비밀 요소는 실제로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임
- 그리고 그것은 거버넌스의 관련성과 거버넌스 수준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공공 투자에 대한 OECD 권장 사항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이번 기고의 두 번째 주제로 바뀌었음.
- 그리고 적절한 규모는 무엇입니까?
- 상향식과 하향식의 올바른 조합은 무엇입니까?
- 결국 이 정책의 비밀 요소는 실제로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임
- 그리고 그것은 거버넌스의 관련성과 거버넌스 수준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공공 투자에 대한 OECD 권장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이번 기고의 두 번째 주제로 바뀌었음
- 이 권고 사항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이 위원회의 최고 권고 사항임
- 이는 2013년 열린 각료회의 이후 승인되었으므로 10년 후 우리가 이 도구 키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대규모 문서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찾을 수 없는 권장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좋은 생각일 수 있음
- 다단계 거버넌스라는 제목은 당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취약한 것이었음
-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주제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 산업 기반 정책을 조정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아침 토론은 매우 명확했으며, 다단계 거버넌스가 이를 위한 비밀 요소가 될 것이며 아마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임

● 영국

- 영국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작업을 수행한 훌륭한 회의 대해 의장과 폴란드 및 비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세 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첫 번째는 장소 기반 정책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함
- 두 번째는 장소 기반 정책이 구체적인 결과 측면에서 중앙 정책과 지역 정책을 포함한 다른 정책과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고 작동해야 한다는 것임
- 나는 이것이 데이터 개발 및 평가 결과에 집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서 명확한 도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캐나다 대표단의 의견 중 일부를 반영한다고 생각함
- 제가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요점을 놓쳤음

- 캐나다

- 나는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임
- 하지만 첫 번째는 개념적으로 지역 정책의 위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종의 실용적인 것임
-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이 산업 전략 대 장소 기반의 이야기를 설정하는 이야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보고 있음
- 장소 기반 정책의 모든 이점은 비대칭적일 수 있고 실제로 작동하는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약간의 삼각형임. 다른 곳에서는 작동할 필요가 없음
-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장소 기반의 힘이 나오는 곳임
- 우리는 산업 전략을 위해 지역 정책을 배치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든 이점을 얻지 못한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를 위기에 처해 있음
-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는 비대칭 정밀 개입을 통해 어디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임
- 그리고 저에게는 이것이 바로 이것의 핵심임
-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인 수준에서 꽤 개념적임.
-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몇 분 전에 슬라이드에 올라온 질문을 일반 언어로 변환하여 지적으로 정직해야 하며, 오늘날 지역사회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말하는 것임

(5) [Item 5] Systemic climate resilience in cities and regions (16:15-17:45)

- 발표자

-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7가지 주제에 대한 해당 장을 살펴보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기온 상승은 에너지 시스템, 주거 부문, 운송 및 토지 이용, 생물 다양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임
-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매우 풍부한 보고서임.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살펴보시기를 권함
-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제한적인 하이라이트만 보여 드렸지만 거기에는 제가 대표하지 않는다는 다른 정보도 많이 있음
-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사진은 기본적으로 온도에 관한 것임

-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은 지구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록상 가장 더운 해
음. 또한 OECD 지역의 30%에서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음. 그리고 기온은 기본적으로
1990년대 이전보다 섭씨 1.5도 정도 더 높았음
- 그리고 파리협정 당시 2045년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온도 수준에 도달했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 온도 상승이 이미 30년 앞당겨지고 있는데 이는 좋은 소식이 아니며
여기 차트에서도 볼 수 있음
- 즉, 습한 지역은 최대 3-4%까지 더 높은 온도 상승을 볼 수 있는 지역이며 극지방의 온도
상승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강하다는 의미임
-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영향이 주로 건조하고 열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래서 우리는 섭씨 35도가 넘는 극심한 열 스트레스를 겪는 일수를 살펴보고 있음
- 그리고 현재 기본적으로 매년 20일 동안 추가 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곳이 많이 있음
- 기본적으로 향후 30년에 대한 예측을 한다면 그것이 저배출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 수 있
을 것임. 그것은 중간 시나리오임
- 따라서 기본적으로 빨간색이면 해당 장소에서 추가로 40~60일 동안 열 스트레스가 발생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오늘날 이미 상대적으로 더운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열 스트
레스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이 모두 똑같지는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음
- 그래서 여름에 추가적인 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많이 있음
-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과 제로 전환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약간 모니터링하는 것
은 매우 불평등함
-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역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살펴보고 있
음
- 파란색이 보이면 기본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
- 주황색이나 빨간색이 보이면 좋은 것임. 이는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리고 큰 점과 같은 것을 볼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큰 점뿐만 아니라 시
작하기 매우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것과도 같음
- 솔직히 말해서 별로 좋지 않음. 즉, 60%는 하락했지만 거의 40%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음
- 따라서 그것은 공정하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해 실제로 그다지 고
무적이지 않음
- 따라서 귀하의 지역에서 많은 탄소 배출이 발생한다면, 귀하가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

- 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소비되는 전기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귀하의 지역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어떤 식으로든 이 생산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뜻임
 -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 시스템 전기 생산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그림은 실제로 훨씬 더 좋음
 - 따라서 우리는 70개 지역에서 저탄소 전기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데이터가 있는 지난 4년 동안 평균적으로 11% 포인트 증가했음
 - 실제로 이는 상당히 큰 증가임
 -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매우 긍정적임
 - 그렇다면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 중 하나는 메탄이 기후 변화에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임
 -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25배 더 위험함. 일반적인 CO2와 메탄의 두 가지 주요 생산자는 분명히 농업 부문임
 -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잘 모름. 또한 화석 연료 생산에서 많은 양의 메탄이 배출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부산물일 뿐임
 -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메탄 배출량이 실제로 상당히 높은 특정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 예를 들어 텍사스의 메탄 배출량을 CO2 등가물로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 생산에서 나오는 유일한 메탄이 빠져나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함
 -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컵 대회에서 이러한 배출량을 줄일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고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해야 함
 - 주거 부문 또한 분명히 매우 중요함
- CEMR
 - 그래서 저는 유럽 밖에서 더 많은 가치를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 그리고 그 차원 중 하나는 원주민과의 화해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임
 - 당신이 제시한 발표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화와 적응을 다루는 방법을 알면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정말 독특한 지식 체계가 원주민 공동체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우리가 화해를 검증하고 발전시키며 유럽인이 아닌 사람들과 더 관련성을 갖는 동시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지식 체계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제가 아는 유럽 커뮤니티에는 어쨌든 기회가 있음
- 작년 12월, 우리는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유럽의 기후 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여기에는 특히 환경 및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역량의 맵핑이 포함됨
-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럽 국가의 지역 정부를 운영하는 이유임
- 우리는 또한 협정과 함께 제공되었지만 국가 수준으로 번역되지 않은 다양한 EU 수준 법률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을 지원하고 싶음
- 특히 건물과 지역난방 공동체 발전소의 신고 해제 작업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이스라엘

- 저는 또한 이 작업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으며 기후 회복력을 다루기 위해 이스라엘의 몇 가지 사례를 공유하고 싶음
-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일 중 하나는 위험 지도, 국가 위험 지도가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는 것임. 이는 환경보호부가 주도했음
- 그리고 이 지도의 독특한 점은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해상도가 매우 높다는 것임
- 한편으로는 거리나 동네로 확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임
- 따라서 실제로 국가의 여러 지역 간의 격차와 차이점을 볼 수 있음
- 거기에서 다양한 도시와 지역 간의 차이점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음
-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보여준 불평등을 실제로 말하고 보여주는 것임
- 두 번째 프로젝트는 열 적응 및 완화를 위한 도시 계획에 초점을 맞춘 매뉴얼임
- 더위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큰 관심사임
- 분명히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고 더 빠른 속도로,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음.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움
- 우리는 차양, 교육 자료, 녹색 뿌리, 기타 등등, 그리고 계획 절차 중에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테스트를 포함하여 도시 계획에서 열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개발해 왔음
-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 없는 동네임
-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개인용 자동차와 그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의존이 건축 환경의 품질, 환경의 품질 및 탄소 중립 달성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

- 우리는 보행자 중심의 동네 사례를 연구해 왔으며 이스라엘 상황에 맞게 조정된 자동차 없는 동네 모델을 개발해 왔음
- 대중교통 접근성 등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계획에서도 모델을 구현하는 옵션을 논의 중임
- 개인 주차 공간이 거의 기본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동네 계획에 관해서는 소화하기 쉬운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음

- 루마니아

- 부반(Buban) 지역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기후 현상과 루마니아 도시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우 관련 있는 주제가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음
- 이러한 맥락에서 2022년 채택된 국가 정책의 5가지 목표 중 하나는 녹색 및 회복력 있는 도시와 관련이 있음
- 전국 개방 정책에는 3가지 주요 채널 제한 적응으로 구성된 객관적인 조치를 위해 확립된 35개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음
- 우리의 계획은 루마니아의 또 다른 10개 도시를 지원하여 지역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전 세계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녹색 인프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히 사역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녹색 도시 파트너십의 조정자임

제50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1. 회의명

- 제50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 (Day 2)

2. 일시 및 장소

- 2024년 5월 16일(목), 9:15 ~ 16:15
- OECD Headquarters CC12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담당관 임현아 사무관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송혜연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담당관 차시현 주무관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최은지 부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정민기 부연구위원

4. 주요 주제

- RDPC 장관회의 맥락에서 국제관계
- 농부들의 위기 및 농촌지역의 불만
- 지역, 도시, 비도시 지역에서의 인구변화 관리

※ 항공편 시간(샤를 드골 공항, 오후 8시 5분)을 맞추기 위해 파리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Item 8 회의까지만 참석함

5. 주요 논의내용

(1) [Item 6] Global relations (9:15-11:00)

- 비공개 세션 (회의록 비공개)

(2) [Item 7] Navigating farmers' crises and rural discontent: Enhancing well-being in rural communities (11:30-12:10)

- 발표자

- 지방정부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함. 아시다시피 가장 최근에는 주로 유럽에서 농부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음. 그리고 나는 이러한 일의 동인과 일반적인 의심 (usual suspects)이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시작하여, 불만의 측면에서 주최측이 나에게 제기한 질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를 여러분에게 몇 마디로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임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의 지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함
- 따라서 농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일반적인 측면은 항상 농업 소득임. 농가소득은 위기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로 인해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극한 사건의 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아시다시피 우리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제 사회의 매우 큰 관심사임
-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이번 전쟁은 식품 에너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음
- 저는 운명과 선을 많이 싫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경에 있는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중 일부는 훨씬 더 끔찍하게도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경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유형의 기준에 첨부되어 있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시장과 무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지난 몇 년간 EU 농업 소득 수치를 살펴보면 이 기간에도 농업 소득이 증가해 왔으며 2023년에 정점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음. 왜냐하면 투입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 가격은 24년에 대한 예측이 다소 덜 명확하고 불확실하더라도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소득 최고치를 관찰하는 동시에 증가했음
- 따라서 소득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소득 측면에서 따라잡기가 있음
- 이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GDP 감소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훨씬 장기적인 부문별 구조 조정의 일부임

- 따라서 생산성과 농민 소득이 경제의 다른 임금을 따라잡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농민들 사이의 우려와 특수성, 단결의 원천임
- 물론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고 여전히 농민들이 최소화되는 상황에 있음. 농민들 사이의 이러한 불만 뒤에는 다른 사회적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농민 수의 감소와 뉴잉글랜드 간의 어려움, 높은 노동력의 어려움이 농촌 공동체에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함
- 물론, 이번 세션의 배경 연구에서 설명한 농촌과 도시 간의 웰빙과 서비스의 죽음도 이러한 어려움의 일부임
-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는 농업 부문의 특수성이기도 하며 농업 활동이 고도 기술 직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구식 직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존재함
- 그리고 그것은 여러 국가에서 문화위원회가 발행한 일부 논문에 사용되었으며 사회 문제에 관한 두 개의 논문이 있음
-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발생한 정책 변화와 관련된 적어도 매우 중요한 동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유럽의 농민 시위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우리는 유럽 의회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있음
- 아시다시피 EU 공통 정책은 연합의 가장 큰 예산 지출 중 가장 큰 정책이자 선거의 중요한 원천임. 소득은 청소년 전체에서 약 16.5%로 계산되며, 약속된 수익의 소득은 정책에서 발생함
- 따라서 몇 달 전에 발표된 리뷰에서 유럽 연합의 미래 농업 및 식량 정책에 대한 최근 분석에서 얻은 통찰력과 경험을 말씀드리겠음
- 그리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간의 공통 생태 정책은 하이브리드 환경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정책과 생물 다양성, 수질, 이후의 균형과 같은 환경 지표를 사용하여 실행 및 통제하는 정책 사이의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음
- 이러한 변화는 주로 환경 규제 강화와 환경 조건부 강화에 의해 주도되었음
- 예를 들어, 설립자는 농경지를 위해 4개를 따로 확보하거나 농촌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지원해야 함
- 따라서 이는 물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지불액이 올바르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나타냄
- 하지만 물론 그것은 기회도 창출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부터 순서대로 시작해야 하는 곳임.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 서비스 제공과 제도 또는 존재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시장을 통해 소득을 다양화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임

- 우리는 브뤼셀의 우리 대표들과 왜 EU의 기초가 환경 정책과 규제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졌음.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지 않고, 그들은 EU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으며 그들이 지불받을 방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이야기할 것들을 관찰했으며, 농부들은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대규모 토지 재고 비용에 대해 항의했음
- 그리고 이번 시위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음
- 이는 또한 소비자의 주요 동인 중 하나인 정책의 변화가 농약의 지속 가능한 사용 지침의 철회였으며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법에서 포기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 같음
- 그리고 지급 및 검사에 적용되었던 조건이 완화되었음
- 따라서 동인 측면에서는 불만의 근원이 되는 프로세스를 정의할 방법이 없더라도 많은 증거가 있다고 생각함
- 이는 소득 문제가 아니라 농업 및 환경 정책 패키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선거의 맥락에서 정책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변화 때문임. 그리고 이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 이상임
- 물론 이것이 유럽연합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럽연합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방식을 보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남. 그리고 이러한 패턴의 변화는 물론 농장에 있는 기술 측면에서 사고방식의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농촌 정책 대화에 대한 높은 경계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함
-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낙관적이어야 하지만 이는 의지 패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미침
- 이는 팔머스의 시위가 탈퇴와 함께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진 정치적, 경제적 복잡성을 가져옴

● President

- 저는 이 토론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쁨. 왜냐하면 농촌과 농업을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그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얽혀 있으며 그 과정의 일부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시작한 지속적인 협력임
- 사실 월요일에 우리는 세션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고 실제로 월요일에 농촌 불만에 관한 세션을 가졌음. 여기서 목적은 연구의 요소와 일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임.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기된 토론임

- 불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서를 약간 변경하여 질문을 맨 앞에 놓을 수도 있음
- 우리는 많은 나라에서 화재와 트랙터로 인한 불안을 목격하고 있음
- 월요일에 우리가 가졌던 토론 중 일부는 이것이 도시와 농촌 사이의 실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가요?
- 그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인식과 문화적 요소입니까?
- 예를 들어, 그 요소에 대해 회피하는 미국의 연설자가 있었음
-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 질문에 대해, 동인과 정책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혼란의 주요 동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임
- 바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측에서는 몇 가지 요소를 작업하고 있는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요소 중 일부에 동기를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임
- 다음 요소는 물론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제15차 RTPC 세션에서 농촌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 작업해 온 불만 주제를 언급하는 것임
-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은 우리가 현재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농촌 개발 프레임워크로 이어졌음
- 기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다단계 거버넌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우리는 자연 자본, 혁신, 무역 부문 등을 둘러싼 여러 요소를 조사했다고 말하고 싶음

● 캐나다

-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 전환 일자리 중 약 8%만이 농촌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몇 년 전 우리는 재생에너지와 농촌 개발을 연결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음
- 그 당시 보고서에서 우리는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았었음
- 그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아니오'였음. 이는 이러한 재생 가능 에너지 배치 중 상당수가 생태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실제로 포함시키지 않고 하향식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이 아님. 그래서 보고서 당시에는 그것이 주요 결론이었음. 효과는 더 간접적이었음
- 이미 몇 년 전의 일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방식으로 녹색 전환과 함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 이러한 환경에서 전 세계 기업의 대다수인 중소기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 네덜란드

-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세미나였음
- 저는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을 강조하고 싶음. 우리는 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시위가 매우 시끄러웠기 때문에 불안감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음
- 발표에서 불타는 사진을 사용하셨음. 예,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비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새 내각에는 오늘 아침부터 농촌 지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새 정부가 들어섰음
-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간 계획이 북쪽의 도시와 농촌 지역이 아닌 매우 강한 지역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것임
-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농촌 지역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임
-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사회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도 있었다는 것임
- 이는 다양한 부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경찰과 시장이 참여하는 지원 네트워크임
-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음. 2002년에 20년 이상 사회 불안을 추적했으며 페루 지역, 특히 2017년에 많은 시위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지방에서는 작년 3월에 이미 증가했음
- 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고 OECD가 지원을 통해 관심을 가져주게 되어 기쁨. 또한 농촌 실무 그룹과 이 그룹에서도 이렇게 해주셔서 매우 감사함

- 스위스

- 제가 발언하면서 저는 TV에 나오는 누군가처럼 행동할 것임. 왜냐하면 글로벌 정책 실무 기구의 새로운 의장 중 한 명이 스위스인이기 때문임. 그래서 우리는 세트가 항상 소박하지만 때로는 조금 드러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함
- 그래서 새로운 의장인 Danielle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음. 그는 스위스의 농부들이 시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생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음
-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이번 시위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음
- 따라서 불은 확실하지 않음.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확실히 농업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임

- 이는 스위스 의회에도 잘 반영되어 있음
- 따라서 많은 농업 문제는 법원을 통해서보다 확립된 정치 시스템 구조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 주제적 관점에서 농부는 다른 OECD 회원국과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스위스의 농부들의 불만은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 그리고 낮은 생산자 가격임
- 두 번째는 직접 계획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관리 요구 사항의 복잡성임
- 세 번째는 법안 변경에 따른 계획 보안 부족, 마지막은 올해 3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른 것임
- 그리고 그것은 또한 고객과 사회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감사의 부족이라는 새로운 사실이었음.
- 그것은 그들이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사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스위스 가족이 정말 중요한 사안임
- 따라서 우리 연방 농업청은 이 부문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임
- 따라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2027년에 정부에 제출할 미래 농업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 이 새로운 정책은 농업 소득에 종사하는 식품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해결하고 식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
- 스위스의 정치 구조와 정치 체제에서 농업을 잘 대표하는 것은 이러한 개혁이 진행될 수 있는 좋은 조건임

● 미국

- 미국에서는 농부들의 시위와 같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농업이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을 포함해 지역 간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그리고 보고서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이러한 유형의 지역 불평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기술을 제공하라는 권장 사항이었음
-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농촌 지역사회와 같은 지역의 형평성에 중점을 둔 인력 개발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요 우선순위가기 때문임
- 실제로 우리 회사에는 Good Jobs Challenge라는 프로그램이 있음. 이 프로그램은 업계 주도의 근로자 중심 교육 파트너십 및 전국 시스템에 5억 달러를 투자했음
- 그리고 실제로 너무 오랫동안 일부 농촌 지역과 같은 고통받는 지역사회는 디지털 기술 등 경제적 이동성을 제공하는 훈련 및 교육 기회에서 제외되었음
- 따라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지원 검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이

농촌 지역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형평성 고려 사항과 지원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에서 대표되었다는 것이었음

- 지원자는 농촌 지역과 기타 소외된 인구를 포함하여 소외된 지역 사회를 목표로 삼기 위한 전략을 제공했음
-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개념은 6,5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성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 농촌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제로 필요한 교육 및 기술 향상을 받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보육, 교통 및 기타 필수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한 랙 어라운드 서비스임
- 저는 혁신 기반 기회를 잠금 해제하고 농촌 지역 사회 내에서 이것이 미국에서 우리가 매우 공감하는 내용에 대한 초안 보고서의 권장 사항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음
- 실제로 우리는 최근 OECD 및 Rural Communities Assistance Partnership이라는 제3자 연구 기관과 제휴하여 미국의 농촌 혁신 강화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임
-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파트너십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권장 사항을 전국, 특히 농촌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음

- 스페인

- 인구학적 문제와 관련된 예산 조치를 넘어서 채택된 조치임
-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을 공유하고 싶음
- 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현의 예임
- 이는 정책 실무그룹에서도 발표되었음
- 이것은 당신에게 가까운 일종의 공공 행정임
-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1년 전에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음. 즉, 성공적으로 구현되었음
- 이 계획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라는 개념과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이 보조금은 주민 수가 500-8,000명 사이인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함
- 그래서 1단계는 지난 4월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대책 중 조언을 제공하는 것과 온라인을 통한 대면세션으로 구성돼 있는 토론회, 그런 다음 식품 생산에 관한 조치를 채택함

- 지역위원회 (Comite des Regions)

- 우리는 지리적 영향, 농촌 지역 및 다소 유사한 결론과 작년에 정당이 승리한 네덜란드

- 지역 선거의 많은 결과에 대한 지역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음
- 네덜란드의 두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회원들이 이제 우리에게 왔음
 -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불만이 정치 시스템과 하위 국가 수준에도 유입되는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음. 이는 아마도 처음으로 또는 매우 빠르게 발생하는 영역일 것임
 - OECD 동료들이 언급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세 가지 교훈은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음. 의사소통뿐 아니라 우리가 얻은 정보로 무엇을 합니까?
 - 그래서 유럽 수준에서 우리는 농촌에 대한 교훈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구현합니까?
 - 사람들이 정말 느끼나요?
 - 우리는 이것을 듣고 배우고 실천합니까?
 - 나는 모든 것이 듣고 있고 구현이 완료되었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함
 - 제가 생각하는 웰빙과 관련된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문화임. 왜냐하면 농촌 지역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고 문화에 대한 강력한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에 대한 끈끈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우리는 녹색 전환이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결합되어 많은 국가에서 농촌 지역과 대도시 지역 간의 격차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연구를 보았음
 - 그리고 이를 부문별 변화와도 연결할 수도 있음
 -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기 전에 대통령이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임
 - 이처럼 경제 시스템에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통 산업에서 탈피하는 등 그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은 수도권 지역인 것 같음
 - 그리고 마지막 요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 그리고 농촌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중소도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리고 또한 이 토론에서 이러한 핵심 요소인 사회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순서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3) [Item 8] Managing demographic change in regions, cities and rural areas (12:10-13:00)

● 발표자

- 축소, 스마트 및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여기서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 이 프로젝트에는 그래픽 시나리오의 일부 지표, 사례 연구, 모범 사례가 포함된 MOD 학습자 지침, 인구 통계학적 추세를 제시하고 특별 계획, 토지를 포함한 세 가지 주요 정책 영역을 다루는 최신 변화를 제시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음
- 이용, 환경, 주거, 국가의 산정과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작은 도시와 마을도 축소되고 있음
- 따라서 이것은 OECD 기업가 정신 센터의 3개 지역에 걸친 팀워크이며, 지역과 도시에 따라 곧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임
- 일부 OECD 기업은 현재 발표 및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예측에 따르면 향후 수십 년 내에 상황이 바뀔 수 있음
- OECD 국가의 생활인구 수는 2060년까지 88명에서 4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OECD 국가 전체의 연령 구조를 살펴보면, 5세 미만 아동 수는 200년까지 거의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80세 이상 인구 수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이러한 모든 추세는 지역과 도시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영토적 차원을 가지고 있음
- 농촌 및 외딴 지역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몇몇 작은 마을과 도시 역시 심각한 인구통계학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여러 정책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음. 그러나 경제 및 재정 문제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도 증가하며 토지 이용과 거버넌스 및 사회에 대한 특별 개발 계획도 영향을 받음
-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반드시 계획적인 웰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대응은 혁신적인 거버넌스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회와 실험을 가져옴
- 수축은 환경 영향, 경제 상승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같은 경제적 기회를 줄일 수 있음
- 그리고 다수의 OECD 지역에서는 이주 및 출산율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속해서 인구가 발생하게 될 것임
- 해당 공간의 인구학적 변화를 관리하는 OECD 접근 방식은 주로 인구학적 적응을 선호함. 이 접근 방식은 인구 감소의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 그 결과를 적응시키는 방법을 모색함.
- 웰빙을 위해 우리의 접근 방식은 올바른 영토 규모의 장소 기반 정책을 장려하고 특정 장소가 현재와 미래의 인구 통계학적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민감하게 고려함
- 예를 들어 접근성 서비스 및 종교에 대한 우리의 작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듣게 될

것임

- 이러한 장소 기반 접근 방식에는 기능적 영역의 사용, 도시 농촌 협력 증가, 인구통계학적 전망과 사회경제적 지속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 및 토지 이용 대응 촉진이 포함됨
- 우리의 접근 방식은 또한 수직적 및 수평적 조정, 시민 참여 및 의사 결정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부, 종교 및 재정 도구를 포함하여 일관된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다단계 정부 메커니즘을 선호함
-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자금 조달 및 자금 조달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과 능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용 가능한 과학화 예측과 장기 인구 통계 데이터 시리즈를 기반으로 전략적 예측을 촉진함
- 일반 건강 의사결정자는 미래를 위해 축소되는 통합체와 도시를 더 잘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결정함
-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지역 적응과 그래픽 변화를 돕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보완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며 저의 개입을 마무리하고 싶음
- 향후 몇 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OECD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유럽 위원회가 10개 지역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 우리는 해당 국가 및 대표단과 연락할 것임. 이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이 걸릴 것임

● 유럽연합

- 저는 이 시기적절한 작업을 환영하고 싶었음
-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서비스 제공 약속과의 상호 작용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의제이며, 사람들이 할 권리와 체류할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임
- 그런데 우리는 이 작업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 최근에 응집력을 시작한 분석 부분을 지지하게 되어 기뻐함

● 영국

-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러한 장소를 젊은이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지도자에게 제공됨
-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을 늘리는 문제도 있음
- 이 임무는 지역 사회 및 운송 임무 내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순전히 경제적

요소를 뛰어넘음

- 이는 런던이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대중교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영국의 모든 지역을 구매할 계획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

-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일본이 가장 심각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 일본의 인구는 이미 많은 도시에서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은 도시와 교외 지역 모두에서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기능의 지속 가능성을 비교함
- 따라서 경쟁력을 더욱 도모하고,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이슈를 지역 전체에 배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비와 CO2 절감을 통해 다양한 생활 방식과 보행 방식을 지원하는 전략과 함께 사람 중심의 다세대 커뮤니티를 실현하고자 함
- 현재 OECD 국가들의 수도에서 진행 중인 모든 연령층을 위한 도시 프로젝트에 관해 우리는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모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가 OECD 회원국과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급속한 인구 노령화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램

● 한국

- 저는 한국이 위대한 개혁과 필수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측면에서 민주적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은 주요 정책 변화 중 하나임
- 이에 한국 정부는 노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70세까지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구정책에서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여건을 마련하고 확장하는 등 질 높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됨
-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처럼 마을 근처 국도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 더해, 지방 선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지역 인구가 세계에 신고되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음

- 정치, 주택, 인프라, 문화, 복지, 일자리 등 필수 서비스 분야임
- 이 프로젝트는 청년층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리고 다양한 지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문화, 스포츠 부문,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의 프로젝트에 대해 선택할 수 있음
- 이동권 확보를 위해 협력이 감소하는 지역에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예를 들어, 공공 택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지역에 있음
-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음

● EU Commission

- 위원회는 차기 회장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도구 사용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살펴보는지 질문했음. 따라서 이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임
- 또한 저는 유럽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이는 기본적으로 변형과 미학 및 포용성을 결합하려는 시도임
- 그래서 마음에 와 닿았지만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젊은 세대 간 프로젝트와 축소된 지역 사이에 농촌 지역에서 많은 이니셔티브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음
- 저는 많은 관심과 영감을 주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마지막 사항은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건물을 영리하게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음. 왜냐하면 황폐화는 지역의 추가 이주를 위한 시험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임
-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특히 공공 자금의 경우에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우 자주 자금이 사용되었다가 일단 쇠퇴가 발생하면 이 인프라를 다시 조정해야 하고, 이로 인해 지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촉발되었기 때문임

지역주도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관련 업무협의회(1차)

□ 일정 및 장소: 2024. 5. 14 (화) 14:30~15:30 / OECD 본관

□ 참석자

- 최은지 부연구위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정순열 국토교통부 과장(OECD DCD)

□ 주요내용

- OECD 내 지역주도 개발협력(LLD) 관련 논의 주요 현황
 - OECD는 현재 매우 광범위한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섹터 구분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현재는 LLD 개념을 넓게 보고 있으며 국별 맥락이 매우 다른 만큼 앞으로 LLD에 대한 정의는 폭넓은 시각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LLD의 범위는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결국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념 또한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나가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음. Peer learning exercise 연구는 인터뷰 기반의 국별 조사 수준에서 진행 중임
 - Peer learning exercise 일환으로 member country deep dive(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partner country deep dive(Nepal, Colombia, Ethiopia)를 대상으로 5개 주제(risk management, local capacity, politically constrained environment, measurement, multilateral)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임
- LLD 관련 논의가 시민사회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이유
 - OECD DAC에서의 LLD 논의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안보의 측면에서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음
 - 미국은 ODA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특히 반군이 점령 중인 국가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정치적 제약이 있는 국가에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의 부재, 재난 발생 시 가장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현지 시민사회라는 측면을 고려한 방식임
- 주요 국가별 LLD 논의 특징
 - 미국은 시민사회 중심의 성격이 강함. 미국 LLD 특징과 관련해서는 US Peer Review 2022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임
 - 캐나다, 스위스, 아일랜드는 LLD 관련 구체적인 정책문서가 발간된 것은 없으나 제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호주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으며 실제 공식 정책문서에 LLD 개념을 반영함

- LLD 논의 관련 참고할 만한 기타 문서
 - 2023년 1월 LLD 연구 착수를 알리는 DAC 문서
 - 2023년 2월 발간된 Framing DAC member approaches to enabling LLD
 - 2023년 11월에 개최되었던 DAC 고위급 회의(high level meeting) 문서(고위급 회의는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모든 결과문서는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있음)
 - 2024년 초에 발간된 DAC 문서

- LLD 관련 국토·도시 부문 우리나라 사례 및 국내 추진 방향에 대한 조언
 - OECD는 “Framing DAC member approach to enabling locally led development”에서 LLD 개념 정의를 폭넓게 제시하고 있음. 해당 문서는 시민사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지방정부, 중앙정부도 모두 로컬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도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개발협력 수행에 있어 안보의 목적이 강한 미국이 LLD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인프라는 민간부문에서 따로 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프라가 ODA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 개인적으로 LLD 논의가 너무 시민사회 측면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국토연구원에서 논의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음. 예를 들어 인프라나 도시 관련해서 필요한 평가 지표, 로컬 주체로서 중앙정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증거 (evidence) 등이 제시된다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

지역주도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관련 업무협의회(2차)

□ 일정 및 장소: 2024. 5. 16 (목) 15:00~16:00 / OECD 별관

□ 참석자

- 최은지 부연구위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 Joëlline Benefice Policy Analyst, Anjeza Llulla Policy Analyst, 정순열 국토교통부 과장(이상 OECD DCD)

□ 주요내용

- 2023년 1월부터 진행 중인 Peer Learning Exercise 주요 내용 소개
 - Peer learning은 조사 및 인터뷰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ODI와 함께 연구 보고서 형식으로 결과를 정리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연구(research)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확히는 peer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맞음
 - Peer learning에는 sounding board(비공식), 연구소, 국제기구, 로컬 CSO 및 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지금까지 LLD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key enablers) 및 장애요인(key blockages)을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 특히 공여국들이 LLD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공여국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음
 - Peer learning exercise 연구는 5개 주제별 온라인 행사 개최 및 온라인 인터뷰와 직접 일부 국가를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 Peer Learning Exercise 관련 주요 일정 및 향후 계획
 -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한 형태의 peer learning exercise 결과 문서는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함
 - LLD 관련 모든 주요 행사 관련 자료는 웹사이트에 공개되었으나 일부 side event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도 있었음
- Peer Learning 중 Multilateral 주제 관련 현황 공유
 - LLD 보다는 로컬리제이션(localisation)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주로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내용에 관한 것임
 - 주요 국제기구는 UNICEF, UNDP, GAVI이며 특히 UNDP 사례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됨
 - 세계은행과도 접촉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의 경우 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와 관련해서 locally-led adaptation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AFDB는 CSO 관련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연개금 과제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연사 초청 관련 논의
 - 일본은 politically constrained environment 주제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grassroo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관련 토론에 적극 참여한 바 있음
 - 스위스는 기후변화 및 재난 위기 관련 논의에 적극적이며 territorial development 관련한 논의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과 호주는 LLD 개념화 작업을 완료한 상태임. 미국에 관한 사례는 많이 발표, 공유되었기에 호주 측을 접촉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음
 - Peer learning exercise 종료 후 9월을 넘어가면 OECD DCD LLD팀은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다른 담당자가 업무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거나 누가 담당하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온라인으로 국제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9월 이후 한국에 가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LLD 논의 관련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경험이 있는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 LLD가 작동되며 어떻게 해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evidence)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됨.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개발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함
 - 현재 LLD 논의에 있어 이러한 방식이 실제 잘 작동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증거(evidence)가 부족한 상황임. 원칙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성공 사례를 통해 LLD 방식의 적절성을 입증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함

부록

1. 출장자 항공권

(1) 최은지 부연구위원

현대아산주식회사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
E-Ticket Passenger Itinerary & Receipt

2024 / 05 / 03

승객 정보 (Passenger Information)

- 승객 성명 (Passenger Name) : **CHOYEUNJI MS (OZ 30012****)**
- 항공권 번호 (Ticket Number) :
- 예약 번호 (Booking Reference) :

여정 정보 (Itinerary Information) ASIANA AIRLINES 인타년 좌석배정

OZ 501 ASIANA AIRLINES

	도시/공항	일자/시각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SEOUL INCHEON INT(서울)	12MAY 10:45	TERMINAL 1	ECONOMY/M	14:20	OK
도착	PARIS DE GAULLE(파리)	12MAY 18:05	AEROGARE 1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33G 유효 기간 , Not Valid Before
 무료수하물(Baggage) : 1PC 운임(Fare Basis) : MKWKP (Validity) Not Valid After 12MAY25

OZ 502 ASIANA AIRLINES

	도시/공항	일자/시각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PARIS DE GAULLE(파리)	16MAY 20:05	AEROGARE 1	ECONOMY/M	12:00	OK
도착	SEOUL INCHEON INT(서울)	17MAY 15:05	TERMINAL 1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18G 유효 기간 , Not Valid Before
 무료수하물(Baggage) : 1PC 운임(Fare Basis) : MKWKP (Validity) Not Valid After 12MAY25

항공권 정보 (Ticket Information)

- 발행일/발행처 (Issue Date/Place) : 03MAY24 / HYUNDAI ASAN SEOUL KR (17326120)
- 제한사항 (Restriction) : MILE UG J/C/D/Y/B/M ONLY/NONENDS
- 지불수단 (FOP/Tourcode) : VIXXXXXXXXXXX6118 VISA
- 운임계산 내역 (Fare Calculation) : SEL OZ PAR850.79OZ SEL850.79NUC1701.58END ROE1351.67172
- 항공운임 (Fare Amount) : KRW 2,300,000
- 세금/기타비용 (Tax/Fee/Charge) : 28000BP 32500FR 48500QX 6700IZ 251600YQ 45000Q4
- **항공운임 총액 (Total Amount)** : KRW 2,671,800

※YQ/YR/Q Code는 유류할증료 및 전정보항료 부담금 등입니다.

항공사 공지 사항 (Airline Notice)



- 아시아나 항공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천공항의 제1 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 2016년 4월 1일부터 예약부도위약금 (No Show Penalty)가 부과되오니 여정 변경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선 환불 신청 기한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드리는 말씀 (Remarks)

- 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는 탑승수속/입출국/세관 통과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 여행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의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위/변조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항 탑승 수속 마감은 항공편 출발 1시간전이며, 최소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단, 항공사에 따라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 운항편의 탑승 수속은 운항 항공사에서 이루어지며, 운항사의 규정에 따라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탑승수속시의 수하물 규정이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의 무료 수하물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전좌석배정'을 완료한 경우, 항공기 출발 70분 전까지 수속하지 않으면 예약(사전 변경 좌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 사정 및 써머타임 적용 등 운항시각의 변경을 대비하여, 여정의 출국 및 귀국 탑승일 기준 72시간 전에 항공기 출발/도착 운항시각의 재확인을 권고 드립니다. 미 확인 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고객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 공지: 고객의 개인정보는 각 항공사의 개인정보정책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항공편 예약이 예약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체 (GDS)를 통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개인정보정책을 따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iatatravelcenter.com/privacy> 혹은 해당 항공사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항공편 예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저장 및 이용되고, (공동운항의 경우) 제휴사에 제공 및 위탁되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제한사항

(2) 정민기 부연구위원

현대아산주식회사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 E-Ticket Passenger Itinerary & Receipt				
2024 / 05 / 03					
승객 정보 (Passenger Information)					
• 승객 성명 (Passenger Name) : JEONG/MINKI MR • 항공권 번호 (Ticket Number) : • 예약 번호 (Booking Reference) :					
여정 정보 (Itinerary Information)					
OZ 501 ASIANA AIRLINES					
도시/공항	일자/시간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SEOUL INCHEON INT(서울)	12MAY 10:45	TERMINAL 1	ECONOMY/M	14:20	OK
도착 PARIS DE GAULLE(파리)	12MAY 18:05	AEROGARE 1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35D	유효 기간 : Not Valid Before			
무료수하물(Baggage) : 1PC	운임(Fare Basis) : MKWKP	(Validity) : Not Valid After 12MAY25			
OZ 502 ASIANA AIRLINES					
도시/공항	일자/시간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PARIS DE GAULLE(파리)	16MAY 20:05	AEROGARE 1	ECONOMY/M	12:00	OK
도착 SEOUL INCHEON INT(서울)	17MAY 15:05	TERMINAL 1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21D	유효 기간 : Not Valid Before			
무료수하물(Baggage) : 1PC	운임(Fare Basis) : MKWKP	(Validity) : Not Valid After 12MAY25			
항공권 정보 (Ticket Information)					
• 발행일/발행처 (Issue Date/Place) : 03MAY24 / HYUNDAI ASAN SEOUL KR (17326120) • 제한사항 (Restriction) : MILE UG J/C/D/Y/B/M ONLY/NONENDS • 지불수단 (FOP/Tourcode) : VIXXXXXXXXXXX6118 VISA • 운임계산 내역 (Fare Calculation) : SEL OZ PAR850.79OZ SEL850.79NUC1701.58END ROE1351.67172 • 항공운임 (Fare Amount) : KRW 2,300,000 • 세금/기타비용 (Tax/Fee/Charge) : 280008P 32500FR 48500QX 6700IZ 251600YQ 4500O4 ※ YQ/YR/Q Code는 유류할증료 및 전정보함료 부담금 등입니다. • 항공운임 총액 (Total Amount) : KRW 2,671,800					
항공사 공지 사항 (Airline Notice)					
■ 아시아나 항공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천공항의 제1 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 2016년 4월 1일부로 예약부도위약금 (No Show Penalty)가 부과오니 여정 변경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선 환불 신청 기한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드리는 말씀 (Remarks)					
• 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는 탑승수속/입출국/세관 통과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 여행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의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위/변조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항 탑승 수속 마감은 항공편 출발 1시간전이며, 최소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단, 항공사에 따라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 운항편의 탑승 수속은 운항 항공사에서 이루어지며, 운항사의 규정에 따라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탑승수속시의 수하물 규정이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의 무료 수하물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전좌석배정'을 완료한 경우, 항공기 출발 70분 전까지 수속하지 않으면 예약(사전 배정 좌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 사정 및 써머타임 적용 등 운항시간의 변경을 대비하여, 여정의 출국 및 귀국 탑승일 기준 72시간 전에 항공기 출발/도착 운항시간의 재확인을 권고 드립니다. 미 확인 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고객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 공지: 고객의 개인정보는 각 항공사의 개인정보정책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항공편 예약이 예약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체 (GDS)를 통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개인정보정책을 따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iatatravelcenter.com/privacy 혹은 해당 항공사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항공편 예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저장 및 이용되고, (공동운항의 경우) 계속사에 제공 및 위탁되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제한사항					

2. 회의장 사진



